

양 취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디테일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정 문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디테일을 중심으로 -

양 취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정문

인 준 서

조정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21세기는 패션이 혼합주의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식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로코코시대 여성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식적 이미지를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로코코 패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디자인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세기 프랑스는 절대 왕권의 붕괴와 궁정의 사치와 낭비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산업 혁명으로 대 자본을 형성한 부르조아 계층은 시민계급으로 부각되고 계몽사상은 근대적 시민사회로의 기반이 되어갔다.

로코코 양식은 리드미컬한 곡선의 장식미가 돋보이며 실내장식, 회화, 공예 등 예술 전반에 장식적 특징을 보이며 여성들이 주체가 된 살롱을 중심으로 더욱 발달하였고 그들이 입은 복식에 있어서도 장식미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는 빠니어로 확대 시킨 X실루엣의 로코코 복식은 러플, 꽃, 리본 등이 넘칠 듯이 장식되었고 머리도 다양하게 치장되었다. 로코코 시대 특징적인 장식요소가 된 스토퍼커나 양가장뜨, 팔발라, 플라운스는 S자형의 곡선 문양을 이루며 로브를 더욱 여성스럽고 우아하며 낭만적으로 표출하였다. 산업혁명과 직기의 발달로 가벼운 분위기의 직물과 프린트된 면직물이 널리 사용되었고 꽃문양이 주요한 주체가 되었다. 또한 자카드 직기의 발달로 복잡한 직물 문양이 생산되어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였고 브로케이드, 새틴, 타프타 등이 사랑 받았다. 색상도 옅은 장미색, 옅은 청색, 빛바랜 녹색, 황색의 노란색 등의 파스텔 톤으로 여성적이고 사랑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디테일의 특징을 감성 이미지 중심으로 살펴본 결

과 로맨틱 환타지, 살롱 엘레강스, 에로티시즘, 아방가르드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프릴, 레이스, 꽃, 등 넘칠 듯한 장식요소의 반복과 곡선의 결합, 파스텔 톤 색상에 화려하고 풍성한 꽃문양 장식이 조화를 이룬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었다.

둘째, 살롱 엘레강스한 특징은 브로케이드, 벨벳, 새틴 등의 비실용적인 고급 소재들 위에 자수, 스팅글 등의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표면 장식으로 바란 듯한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나타났다.

셋째,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콜셋으로 조인 허리와 대조적으로 풍성하게 주름잡혀 강조된 엉덩이는 에로틱한 섹시함을 표현하였다.

넷째, 거대한 빠니에에 의한 극도의 수평라인과 디테일의 과도한 장식의 부조화를 이룬 머리형태, 여왕 스스로 시스루 소재의 속옷을 겉옷으로 착용하여 아방가르드 함을 연출하였다.

이렇게 각 디테일들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로코코적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는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디테일들이 레이스, 니트, 노방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질감의 소재와 매치되고 색상의 대비를 통하여 낭만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살롱 엘레강스는 플라운스나 꽃 등의 디테일이 다소 절제된 듯 상징적으로 고급 소재들과 조화되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콜셋과 빠니에로 표현된 로코코적 디테일의 에로틱한 이미지가 현대에는 부스티에와 시스루 소재를 사용해 투시에 의한 섹시함과 블랙과 레드 색상 대비로 에로틱한 섹시함을 나타낸다.

넷째, 극도의 과장과 속옷의 겉옷화로 나타난 로코코적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현대에서도 의복의 구조적 디테일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확대시키는 방식과 소재 및 색상의 대비, 언밸런스한 라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상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1은 양가장과 프릴을 응용한 재킷과 스커트의 슈트로 구성되었고,

작품2는 재킷과 바지 슈트에 플리즈와 리본을 장식하였고,

작품3은 핑크색 원피스에 프릴과 팔발라를 장식하여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작품4는 바지슈트를 홈스펀과 쉬폰의 이질적 소재로 리본과 프릴장식을 하였고,

작품5는 비즈가 장식된 재킷과 새쉬벨트를 응용한 바지슈트로 구성되었으며,

작품6은 플라운스 장식의 원피스와 볼레로의 앙상블로 우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작품7은 아이보리 원피스에 블랙 망사를 레이어드 시켜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작품8은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언밸런스한 네크라인에 여러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구성하였다.

인간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의 의상 디자인은 현대의 다원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고에서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로코코 시대 복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디테일들은 복식의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현대에 있어서 로코코적 이미지의 표현은 다양한 디테일들이 이질적 소재의 조화나 색상의 대비 등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재창조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 의의 및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3

II. 로코코 복식의 이미지와 디테일

1. 시대적 배경 4
2. 로코코 복식의 특징 15
3. 디테일의 종류 및 유형 28
4.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적 디테일의 특징 40
5. 로코코 복식의 감성적 이미지 고찰 46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로코코적 이미지

1. 로맨틱 환타지 60
2. 살롱 엘레강스 62
3. 에로티시즘 64
4. 아방가르드 66

IV. 작품제작

1. 작품 의도 및 방법 72
2. 작품 및 해설 75

V. 결론 9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구조적 디자인으로서의 디테일의 종류 및 특징	32
<표 2> 장식적 디자인으로서의 디테일의 종류 및 특징	36
<표 3> 트리밍의 종류 및 특징	39
<표 4>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요소에 따른 이미지	56
<표 5> 현대복식에 표현된 로코코적 이미지의 표현방법	71
<표 6> 작품계획도	74

그림 목 차

<그림 1> 키테라섬의 순례	14
<그림 2> 뽕빠두르	14
<그림 3> 그네(1767)	14
<그림 4> 오멜 드 슈비즈	14
<그림 5> 자크뒤브아리앙시성의 책상	14
<그림 6> 쾌중 시계	14
<그림 7> 향수병	14
<그림 8> 와또 가운	26
<그림 9 > 로브 아 라 프랑세즈	26
<그림 10> 빠니에 두블	26
<그림 11> 사보이의 마리아 테레사	26
<그림 12> 로브 아라 폴로네즈	26
<그림 13> 로브 아 랑글레	26
<그림 14> 파발라 장식	27
<그림 15> 18세기후반여자머리장식	27
<그림 16> 브로케이드	27
<그림 17> 로코코시대의 문양	27
<그림 18> 플라운스	45
<그림 19> 양가장뜨	45
<그림 20> 팔발라	45
<그림 21> 에셸	45
<그림 22> 플리츠	45
<그림 23> 자수	45

<그림 24> 플라스틱	45
<그림 25> 드로우스트링	45
<그림 26> 새쉬벨트	45
<그림 27> 바인딩	45
<그림 28> 태슬, 로제티	45
<그림 29> 앙뚜아네뜨	57
<그림 30> 뽕빠두르	57
<그림 31> 뽕빠두르	57
<그림 32> 앙뚜아네뜨	57
<그림 33> 로브 아 라 시르까시엔느	57
<그림 34> 로브 슈미즈	57
<그림 35> 건축적 머리	57
<그림 36> 크리스찬 디오르	69
<그림 37> 라크루아 05/06 F/W	69
<그림 38> 언더커버 05 S/S	69
<그림 39> 소니아 리키엘 05/06 F/W	69
<그림 40> 샤넬 05/06 F/W	69
<그림 41> 아르마니	69
<그림 42> 구찌 05/06 F/W	69
<그림 43> 게리에로 04/05 F/W	69
<그림 44> 발렌티노 05/06 F/W	70
<그림 45> 크리스찬 디오르 06 S/S	70
<그림 46> 크리스찬 디오르 04/05 F/W	70
<그림 47> 빅터 앤 로프05/06 F/W	70
<그림 48> 크리스찬 디오르 04/05 F/W	70

<그림 49> 빅터 앤 로프 05 S/S	70
<그림 50> 작품 I 디자인 스케치	76
<그림 51> 작품 I	77
<그림 52> 작품 II 디자인 스케치	79
<그림 53> 작품 II	80
<그림 54> 작품 III 디자인스케치	82
<그림 55> 작품 III	83
<그림 56> 작품 IV 디자인스케치	85
<그림 57> 작품 IV	86
<그림 58> 작품 V 디자인 스케치	88
<그림 59> 작품 V	89
<그림 60> 작품 VI 디자인 스케치	91
<그림 61> 작품 VI	92
<그림 62> 작품 VII 디자인 스케치	94
<그림 63> 작품 VII	95
<그림 64> 작품 VIII 디자인 스케치	97
<그림 65> 작품 VIII	98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다양화, 다원화 현상은 과거 모더니즘의 이성애 억압당했던 낭만적인 감성과 열정이 부활되고 물질과 육체가 확장되게 하였다. 대중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절충주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속에서의 즐거움 추구, 미학적 스타일, 다원주의 속에서의 공존을 지향한다.¹⁾ 21세기는 젠더리스(gender less), 에이즈리스(ageless), 레이스리스(raceless) 한 소비자의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이 혼합주의 성격으로 유행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표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패션의 장식성에 의해서이다. 특히 현대 패션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상품의 차별화, 기호의 차별화가 추구하고 있으며, 장식적 디자인은 이를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²⁾

18세기 로코코 복식은 로코코의 예술양식에서 출발하여 장식적이고 귀족적인 우아한 취미가 그대로 양식개념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러한 장식 모티브는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서양복식사상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런 복식으로 장식문화를 이끌었다.

특히 Lowe & Lowe³⁾가 “18, 19세기의 실루엣 변화는 근본적 변화보다는 디테일과 세부적 변화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고 언급하였듯이, 로코코 복식은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식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1)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pp.17~21.

2) 박삿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p.2.

3) Elizabeth D. Lowe and John W. Lowe, "Velocity of the Process in Women's Formal Evening Dress, 1789-1980,"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90, 9(1), pp.50~58.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복고적 성향은 과거에 향유되었던 복식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기계 중심의 현대사회에 인간성과 심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로코코 복식을 재등장시켜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미지란 어떠한 형(形) 또는 상(像)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발전되면서 패션업계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평가를 뛰어넘어 복합된 또는 총체적인 이미지 평가를 마케팅 전략에 도입하면서 감성이미지에 따른 타겟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복식 디자인에서 감성이미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복식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 디테일은 복식의 감성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식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18세기 여성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대 복식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감성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장식적 요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실물을 제작함으로써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로코코 양식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로코코 복식의 특징 고찰하고,

둘째, 장식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며,

셋째,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 및 디테일을 이미지로 분석,

넷째, 로코코 복식의 장식적 특성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로코코의 장식적 표현과 이미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실물 작품을 제작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장식적 요소에 나타난 감성이미지가 현대복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대 복식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실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첫째, 로코코 여성복식의 장식적 요소에 따른 감성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로코코 양식의 용어 및 로코코가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사회, 문화적, 사상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의 여성복식에 관련된 각종 문헌 고찰과 사진 자료를 표집 및 분석을 통하여 로코코 여성복식의 형태, 장식, 직물, 문양과 색채의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디테일의 종류와 구분에 대하여 고찰하여 로코코 여성복식에 나타난 감성이미지를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로코코 여성복식에 나타난 감성이미지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로코코 여성복식의 디테일과 로코코적 이미지의 수용사례를 2000년 이후 빠르게 뿔뿔(Pret a porte) 컬렉션과 오뜨 꾸뛰르(Haute couture) 컬렉션을 위주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각 감성이미지에 표현된 디테일의 종류를 분석하여 작품제작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작품 제작은 감성이미지 분류를 토대로 로맨틱 환타지 3점 · 살롱 엘레강스 3점 · 에로티시즘 1점 · 아방가르드 1점으로 총 8작품을 실물 제작하기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복식사적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로코코 여성 복식과 향후 트렌드 반영을 위하여 2000 S/S부터 2005/2006 F/W까지의 사진자료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로코코 복식의 이미지와 디테일

1. 시대적 배경

1) 사회 문화적 배경

18세기 초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후광으로 여전히 이전 시대의 호화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18세기 로코코시대는 루이 14세가 서거한 1715년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까지 약 74년의 기간으로 유럽 문화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셋으로 구분되는데 초기는 루이 14세의 유일한 증손자이며 당시 5세인 루이 15세의 숙부 필립 오를레앙(Philippe d'Orleans)공의 섭정시대(1715~1725), 중기는 루이 15세의 친정시대(1723~1774)를 이르며 말기는 루이 16세(1774~1792) 시기로 구분되며, 로코코 양식으로 가장 화려한 시기는 루이 15세에서 루이 16세 초기 시대라 볼 수 있다.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의 국왕이 즉위하고 섭정을 두게 된 일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특히 루이 14세가 서거한 후의 섭정을 섭정시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 시대는 우아한 방탕, 세련된 악덕, 추잡한 정사를 연상시키듯이 오를레앙공은 쾌락주의와 자유 방종을 유행 시켰다.⁵⁾ 이 시기 절대적 권위의 왕권이 붕괴되고 통치자들의 방탕과 무능이 국민에게 불경과 멸시를 심어 놓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재정이 흔들리게 된다. 오를레앙공은 관저를 베르사이유에서 파리 뵐리궁으로(1871년 파이크윈의 시가전에서 거의 전소되어 현재는 정원밖에 남지 않았다) 옮겨 왕을 중심으로 상류 계급인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경.박한 풍조는 계속되어졌으며, 자유롭

4)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2003), p.241.

5)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프랑스사(서울: 기린원, 1991), p.244.

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주변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바로크의 엄격한 예의절차와 형식적인 생활양식은 그 성격이 약화되고 프랑스 양식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로코코 양식을 창조하였다.

무리한 영토확장 및 에스파니아 왕위계승전쟁(1701~1714)등 여러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하고 굴욕적인 위트레흐트 조약(1713~1715)은 프랑스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상실시켰다. 오를레앙공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은행가 존로우(John Low, 1671~1729)는 식민지 계획을 운영하면서 주식으로 일반은행을 설립하여 지폐를 발행하고 미국 식민지에 대한 교역 우선권을 갖는 증서를 발행 하였으나 과도한 주식 발행으로 주가는 폭락하였다. 이 하나의 커다란 부정사건이 몇 백 개의 조그만 과오보다도 더욱 국정을 약화 시켰다.⁶⁾ 반면 루이 14세의 재정 담당자 콜베르(Colbert, 1619~1683)가 도입한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섭정기 동안 시민계층은 상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 부르주와 대자본이 성립하게 된다. 섭정기 동안 시민계급의 부단한 노력과 몰락으로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는 하나의 문화계층으로 용해되어갔다.⁷⁾

루이 15세는 1723년부터 즉위했는데 연약하고 게으른 성품에 때로는 잔인한 것이 마치 루이 13세와 흡사하였고 추종과 아부만을 하였다. 정치에는 관심도 인내심도 없던 루이 15세는 집정하게 되자마자 정무 전반을 추기경 플루리에게 일임하였다. 유능한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1738년엔 정부의 재정의 적자를 해소 하고 경제번영을 꾀하였으나 1742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이 새로운 재정의 적자를 유발하게 되고 국왕의 환락에 지출하는 경비가 과다하여 조세와 끊임없는 전쟁에 쪼들린 민중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렇듯 프랑스 경제가 파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음에도 그는 아무런 근심도 없었고 다만 따분하고 지루한 것만은 견디지 못해 그저 궁정의 화려함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을 뿐이었다.⁸⁾

6) Ibid., p.249.

7) 아르놀트 하우저, 염무웅, 반성완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로코코, 고전주의, 낭만주의(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pp.21~24.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하였으나 그 또한 무능력자로 국민들을 사랑했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개혁자 튀르고(A..J.Turgot)를 대신에 임명하여 곡물 거래 자유화와 궁정의 예산을 줄이고 특권자에게도 과세를 하려고 하는 등 계획하였으나 베르사이유의 미움을 사서 결국 파면 명령을 받게 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국가는 파산의 길이 임박하였으며 이렇듯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루이 14세 때의 전쟁으로 인한 채무의 증가, 루이 15세와 루이 16세의 무능력,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뜨의 사치,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왕실의 재정 낭비로 인한 것이었다. 콜베르에 의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대자본을 지닌 부르조아 계층은 사회적 불평등을 의식하게 됨으로서 특권층의 면세와 피지배계급의 과중한 수취에 대한 불만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반감은 시민계급층으로 확산되었고 격렬하게 평등을 위해서 싸움으로 1789년 7월14일의 프랑스 혁명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⁹⁾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국 속에서도 유럽은 새로운 산업기술과 생산의 대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기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각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 까지 전파되어 현대인의 물질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완전 기계화된 방적기와 직조기의 발명으로 인해 우수하고 다양한 직물을 빠른 속도로 직조해 낼 수 있게 되어 직조생산 업계의 번성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은 전성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근대복식의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인 격동의 시대에도 동양과의 교역은 계속되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페르시아 등과의 접촉을 통해 유럽 인들은 동양의 예술과 더욱더 친숙해졌으며 그 시대의 가구나 색의 조화, 공예품 등에 동양풍이 적용되었다.¹⁰⁾

8) 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역, 세계풍속사 하:르네상스에서 섹스혁명까지(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2), p.160.

9)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op.cit., pp.272~274.

10) 정홍숙, 박형애,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신와즈리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

사상적 측면을 보면 프랑스는 교육받은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귀족과 고관들의 세력이 둔화되고, 사회,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선진학문과 발달된 과학을 도입해서 보급하였고 르네상스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지적 혁명은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다른 지역에도 널리 전파된 계몽사상으로 성립되었다.¹¹⁾

이 계몽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의 존중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성에 대한 낙관적 신뢰, 이성의 힘이 인생을 충실시킨다는 신념, 나아가 자유, 향락적인 인간 감정의 존중에 기틀을 두고 있다. 또한 그것은 이성의 힘이 실제 생활의 실천과 결부되는 데에 또 하나의 특질을 이루고 있어 그것은 동적 실천적 휴머니즘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런 18세기 계몽사상은 절대왕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내포하면서 새로운 근대적 시민사회건설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 발달하였다. 여기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로크(Rocke), 루소(Rousseau), 볼테르(Voltaire),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같은 사상가, 작가들이 사회중류계층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와 미국에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변혁을 초래하였다.¹³⁾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에서 정부의 권력이 영국에서처럼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되어 상호견제와 균형의 상태를 주장하였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백과전서>는 모든 프랑스 상류계층이 구독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하였고 국민을 자기 사상을 옹호하는 동지로 만들었다.

계몽사상과 함께 경제발전이 18세기 문화활동의 범위와 질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18세기에 귀족계층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엘리트들이 문화를 주도하였다. 이는 세계주의적이며 사회계층의 한계뿐 아니라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고 동시에 보통의 남녀가 활발히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역시 18세기였다.¹⁴⁾

집, 1998.2, 제11집,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158.

11)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op.cit., pp.263~265.

12) 이영환, 서양미술사(서울: 박영사, 1985), p.290.

13) 신상욱, 서양복식사(서울: 수학사, 1993), p.217.

18세기의 프랑스 문화는 유럽전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각국은 프랑스 문화를 추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예술도 패션도 사교예절도 모두 프랑스식 일색으로 되었다. 파리는 세계의 문화도시로서 복식문화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인들은 이전시대인 바로크 왕실의 장려함과 권력의 압박, 에티켓의 거북스러움 등으로 숨 막힘을 느꼈으므로 자연스럽게 살롱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 모이게 된 것이다. 형식적인 허세 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즐겼던 살롱 문화는 장식 미술에 로코코양식을 나타나게 했으며 루이 15세 시대는 여성이 주체하는 살롱이 여론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듯 18세기의 문화양식은 살롱문화로서 프랑스 문화의 전파와 탄생, 그리고 사상이 살롱(salon)에서 비롯된다. 16세기 중엽에 몇 개의 살롱 문호가 개방 되고 나서부터 부유한 시민들의 쾌적한 사교장으로 변영하고 있었는데, 한편 이곳에서 남녀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문학, 도덕, 풍속, 생활감정, 예술 등 여러 가지 화제를 중심으로 즐겁게 토론하며 교양을 쌓는 일 뿐 아니라 세련되고 화려한 의복의 유행과 함께 문화 살롱의 유행을 만들었던 곳이다.¹⁴⁾ 당시의 계몽사상가인 루소, 몽테스키외, 볼테르 등이 살롱에서 집필하기도 했듯이 살롱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루이 15세 치하에서는 철학적 살롱은 미움을 받지 않는 묵인된 반대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루이 16세 시대에 이르면 네케르(Jacques Necker, 1732~1804) 부인의 살롱처럼 살롱이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는 부속실이 되었다.¹⁵⁾ 동시대인들은 ‘여성의 세기’ 혹은 ‘여인천하’ 라고까지 했을 정도였다.¹⁶⁾

프랑스는 궁정과 귀족계급의 향락주의적인 성향으로 사치가 심하고 잇달은 전쟁으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부르조아 계층이 시민계급으로 부각되면서 계몽사상으로 이어져 근대적 시민사회 건설의 기

14)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2(서울: 탐구당, 2003), pp.737~738.

15) 정홍숙, op,cit., pp.234~235.

16)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op,cit., p.271.

17) 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역, op,cit., p.14.

반이 되어갔다. 여성이 주체가 된 살롱을 중심으로 문학, 예술분야가 번성하여 18세기의 유럽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2) 로코코 예술 양식적 특징

고딕이나 바로크가 원래 건축양식의 명칭이었고, 그 시대의 예술이 건축을 주체로 한 조형양식이었는데 비해 로코코는 장식양식의 명칭에서 시작해 정신표현 또는 문화의 총칭에까지 이르게 된다. 로코코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자갈을 의미하는 로카이유(rocaille)와 조개껍질을 말하는 꼬끼유(coquille)의 합성어로서¹⁸⁾ 미술상으로는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에 만들어진 조개껍질이나 돌로 장식한 인공의 축산을 그렇게 불렀다. 로코코 양식은 인습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에 대한 반발¹⁹⁾이었으며 그동안 억눌린 인간 내면의 감정 표출로서의 예술적 특징이 새로운 형태 기초를 이루게 하며 살롱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이 곡선의 감각은 잔잔히 흐르는 듯 경쾌히 춤추는 듯한 선 감각으로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것이며 귀족적, 반 자연적, 인공적, 실내적 등 여러 특색을 지닌다. 즉 리드미컬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화려하고 세련된 귀족 취미를 바탕으로 했다. 외형상의 양식이기 보다는 장식의 성격을 개념화한 것이다.²⁰⁾

로코코 양식의 기본 특질은 이국취미 특히 동양에 대한 강한 취미에 있다고 하겠으며 “남성의 여성화”이며 “자유분방한 감동적인 곡선의 사용”에 있다²¹⁾ 하였다.

(1) 회화

로코코 미술은 실리주의적 쾌락과 쾌감을 구하던 시대적 성격이 크게 작

18) 다카하시 히데지, 유길준역, 서양미술사(서울: 조형사, 1996), p.114.

19) 배영수 외, 서양사 강의(서울: 한울, 2002), p.247.

20) 정홍숙, op.cit., p.235.

21) 박춘순, “18세기 프랑스 복식과 Rococo 장식 motif”, 복식 제4호(1981.2), p.66.

용하여 미술양식은 도피주의와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경쾌한 흐름에 부드러운 곡선과 우미한 여성적인 요소가 예술과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새로운 양식을 부여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회화가 궁정적 예술에서 탈피해 대중적 예술이 되자 수요가 급증 하면서 미술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화가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비개성적인 요구된 서술적 묘사만을 추구하게 되었다.²²⁾ 사적인 목적을 위해 누구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되면서 화려하게 치장을 했을 때는 초상화를 그려 남기기를 선호하여 초상화가 주류를 이루며 유명세를 누렸다.

당시 유명한 실내장식가의 조수로 궁의 장식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터득한 감각으로 로코코 귀족 사회의 우미함을 화폭에 표현했던 장 앙투안느 와토(Jean- Antoine Watteau, 1697-1721)가 아카데미 회원으로 승인 받기위해서 제출한 작품인 <키테라 섬의 순례>(그림1)가 1717년에 아카데미에 등록 되었는데²³⁾ 로코코 미술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와토는 일련의 연극에서 취재한 작품에서 귀족의 연애유희인 “페트 갈랑트(fete galante)”를 주제로 사랑과 쾌락에 사로잡힌 젊은이의 희망과 꿈의 환상적인 이상향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었다. 이 "fete galante"는 그 후 부쉐(Francois boucher, 1703- 1770)와 프라고나르(Jean Hornore Fragonard, 1732-1806)에 계승되어 향락적이고 감미로운 당시의 살롱의 기분을 그렸고 특히 상류사회 마담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 감미로운 로코코 미술을 유행 시켰다. 귀족들의 삶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인 부쉐는 궁정에서 활동을 하며 뽕빠두르 부인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녀의 초상화는 그녀의 권세와 화려함을 배가 시킨 고도의 능란한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보여 준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 위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구사된 빛과 그늘은 황홀하게 보이며 여성의 매력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 냈다²⁴⁾(그림2).

22) 제르망 바쟁, 김미정역, 바로크와 로코코(서울: 시공사, 1998), pp.183~184.

23) Ibid., p.184.

24) 스테판 존스, 김수현역, 18세기의 미술(서울: 예경산업사, 1991), p.24.

프랑스 회화에서 가장 로코코 적이었던 화가 프라고나르는 18세기 회화 가운데 성을 매력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후원자들의 관능적인 취향을 공공연하게 부합시켰다. '그네(1767)'는 그의 가장 선정적이고 농기에 찬 경쾌한 작품으로 장난기 어린 주인공은 그네에는 관심이 없고 애인에게 에로틱한 매력을 호소하기 위해 여인의 휘날리는 치마 밑에서 엿보는 귀족이 시선을 토해 부정한 쾌락의 암시를 표출시킨 노골적인 작품이다. 그는 또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쾌락에 물든 세련된 여인의 모습과 에로티시즘으로서 표현된 로코코 세계만을 그렸다²⁵⁾(그림3).

이렇듯 로코코 회화는 인간의 쾌락주의를 표현하며 곡선적인 섬세함과 여성의 육체적 매력을 나타내는 획기적인 표현주의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다.

(2) 건축, 공예, 조각

루이 14세 말기에 이르러서 로코코는 개인의 사생활을 위주로 한 양식적 배경으로 성전이나 궁전대신에 살롱이 있는 저택이나 별장으로 지어졌다. 그 시대의 건축은 필연적으로 실내에 중점을 두게 되고, 로카이유를 사용한 로코코 조각장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개인이 소유한 곳의 실내 공간을 실질적으로 아담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게 되었다. 또한 로코코의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실내장식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 것은 항해법의 발달 및 국제교역에 의한 부의 증가 진귀한 외국 취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살롱 문화의 확산으로 실내장식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실내를 우아하게 장식하기 위한 벽지의 선택과 색의 배합, 커튼과 거울의 용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실내는 밝은 파스텔 색상, 회색과 은빛, 회록색과 장미빛으로 바뀌게 된다. 건축은 구성미에서가 아니라 회화적인 효과를 추구하게 되며 장식미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로코코 건축에서는 벽체의 표면인 면이 중요하며 그것을 장식하는 회화적 장식과 그것에 둘러

25)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미술의 탄생에서 신표현주의까지(서울: 가람기획, 1997), p.254.

짜여진 유동적인 화려한 공간이 로코코 건축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²⁶⁾ 프랑스 실내장식에 많은 기여를 한 건축가 제르망 보프랑(Germain Boffrand, 1667~1754)은 파리에 있는 공주의 살롱 오멜 드 수비즈(Hotel de Soubise, 1738~1739)의 실내 장식을 설계했다(그림4). 호화로운 천정들과 그림틀, 석고로 된 구불구불한 곡선의 잎이 들러있는 패널 장식, 미묘하게 그늘지는 패널화의 특징을 지녔다.²⁷⁾

18세기 초에는 장식미술이 일반화되어 일반 부유층에서도 가구 제작자들의 상상력이 발휘된 다양한 가구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로코코 양식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람은 1732년 파리로 이주해온 이태리인 메소니에(Meissonier, 1693~1750)로서 그는 프랑스 기공들에게 로카이유를 주제로 한 도안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목 세공, 기타 장롱 제작에 이 문양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²⁸⁾ 이는 1760년까지 프랑스 수공예가 들에 의해 폭넓게 이용되었다. 루이 15세 때의 가구공예는 특히 서랍장과 벽 선반형의 콘솔에 로코코 양식의 구불구불하고 경쾌한 형태와 로카이유 문양이 사용되어 이시대의 모든 테이블은 굽은 다리 모양으로 디자인 되었다(그림5). 그러나 루이 16세 때에는 직선이 구불구불한 선을 대신하게 되었고, 난형, 물방울무늬, 세로줄, 아칸서스 잎, 이국적인 동물들, 그리고 이집트의 스펅크스와 같은 고대의 장식적인 문양을 사용하였다. 또한 금, 은 세공사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거울과 시계, 화려한 샹들리에와 촛대들을 제작함으로써 더욱 많은 분야에 장식적인 발달을 가져왔으며 1750년에는 파리에 500여명에 이르는 기술자들이 있을 정도로 로코코 양식을 충실히 따랐던 분야가 바로 금, 은 세공이었다.²⁹⁾ 실내 가구 뿐 만 아니라 식기류의 디자인도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1759년 금식기와 은 접시들을 녹이라는 루이 15세의 칙령으로 인하여 도자기로 된 식기가 대신 필요하게 되

26) 박춘순, op.cit., p.66.

27) 제르망 보프랑, 김미정역, 바로크와 로코코(서울: 시공사, 1998), p.175.

28) 배만실, 장식미술사(서울: 지문당, 1994), p.223.

29) 제르망 보프랑, 김미정역, op.cit., pp.194~196.

있으며 이에 화려한 도자기는 크게 유행하였다. 장식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뽕빠두르는 도자기를 애호하여 세브르에 도자기 공장을 세워 새로운 화공약품으로 장미색, 킹스 블루(King'Blue), 황금색 도기제작에 성공하였으며 중국으로의 수입품을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였다(그림6).³⁰⁾

로코코 시대의 성애 행위는 조형예술의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공공건물의 프레스코 벽화, 침실에 걸린 그림, 책의 동판화, 벽난로 주위의 도기 세트나 청동 조각상등 어느 곳으로 눈을 돌리든 나체의 모습이나 포옹으로 뒤엉킨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조각가들은 실내장식(살롱)에 어울리는 작은 조각상을 제작하였다(그림7). 장 밥티스트 팔코네(Jean-Baptiste Falconet, 1716~1791)는 꾸민 듯한 우아함으로 뽕빠두르 부인이 가장 선호하는 조각가가 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조각에 대한 공식적인 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각가들은 더욱더 주택의 실내장식에 매달렸다.³¹⁾

장식예술에서 출발한 로코코는 살롱을 중심으로 더욱 발달하였으며 리드미컬한 곡선과 감각적 쾌락의 원리에 따른 장식미는 회화, 건축, 공예, 조각 등 예술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회화는 초상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인간의 쾌락주의를 표현하게 되었으며, 건축은 살롱이 있는 저택의 실내장식에 중점을 주게 되었고, 실내장식을 위한 금, 은 세공이나 조각이 발달하였다.

30) 배만실, op,cit., p.225.

31) 제르망 바쟁, 김미정역, op, cit., p.181.



<그림 1> 키테라섬의 순례
세계의 명화 2, P.97



<그림 2> 뽕빠두르
세계의 미술 4, P.259



<그림 3> 그네(1767)
세계의 명화 2, P.117



<그림 4> 오렐 드 슈비즈
바로크 로코코,
P.175



<그림 5>
자크뫼브아리앙시성의 책상
www.daum.net
2005.10.03



<그림 6> 궤종 시계
www.daum.net
2005.10.03



<그림 7> 향수병
Histoire de la
coiffure et des
coiffeurs, p.104

2. 로코코 복식의 특징

18세기 로코코 복식은 화려하고 우아한 장식과 곡선미가 주체인 궁정복에 비해 시민복식은 대조적으로 검소한 대비를 이루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콜셋(corset)과 빠니에(panier)에 의해 대부분의 실루엣이 결정되고 빠니에의 변화에 따른 각종 로브라는 화려한 의상에 장식과 색상이 첨가되었다. 특히 로브에 조화나 코사주의 꽃장식과 주름장식을 하여 복식 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같은 의상을 만들어 내었다.³²⁾ 로코코 중기(루이 15세기)에는 상류층의 쾌락추구 성향이 프랑스 복식을 더욱 매혹적이고 우아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 복식 유행을 따랐다. 프랑스 복식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루이 15세의 애인 뽕빠두르(Pompadour)와 뒤바리(Dubarry), 루이 16세의 정부인 마리 앙투아네뜨(Marie Antoinette)는 당시 유럽의 패션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 실루엣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의상은 로브로서 일반적으로 로브라고 불리게 된 것은 14세기경으로 로브는 고딕 말기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복식사상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이 시기에 각종 호화로운 로브들이 만들어져 콜셋과 빠니에를 입은 후에 언더 스커트를 걸치고 그 위에 언더 드레스와 이들 로브를 착용하였다. 18세기 실루엣은 가운 밑에 입은 내부 구조물의 형태와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로브의 구성법과 실루엣, 세부장식, 입는 방법 등은 현재 각 박물관에 현존 하고 있는 유품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³³⁾

1720년대 로코코 초기에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화가인 와또(Watteau)

32) 신상옥, op.cit., p.219.

33) 정홍숙, op.cit., pp.243~244.

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가운의 형태로 뒤 네크라인에서 스커트의 밑단까지 길게 늘어지는 풍성한 와또 플리츠는 우아하게 흐르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와또 플리츠가 있는 로브 와또(robe Watteau, 그림8)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로브의 형태로서 이는 앞까지 풍성한 로브 불량(robe volante)과 앞은 꼭 맞고 스커트가 더욱 넓어진 로브 아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로 나누어진다.³⁴⁾

로브 불량은 루이 14세 때 몽테스판 부인이 임신 중에 입었던 실내복이 당시 느슨한 생활감각에 맞아 유행하게 된 것으로 고대극 아드리엔느 역할의 배우가 입고 등장해서 아드리엔느 가운(Adrienne gown)이라고도 한다.³⁵⁾ 이는 30년대를 정점으로 40년대 까지 유행하였다. 타원형이나 스퀘어형으로 넓게 파여진 네크라인은 얇은 천으로 가슴을 가리는 핏슈(fichu) 장식을 하기도 하였고 소매는 대부분 팔꿈치 길이이고 폭넓은 커프스가 달린 것도 있었다.

1720년경부터 프랑스에서 돛형의 후프가 다시 유행하면서 1730년경에는 발레 스커트의 영향 때문인지 치맛단의 둘레가 커지기 시작하여³⁶⁾ 1740년대는 과장된 빠니에의 유행으로 돛형에서 넓은 타원형으로 변하게 된다. 로브 아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는 와또 가운의 변형, 발전된 형태로 상체는 꼭 끼고 스커트는 후프인 빠니에 두블을 입어 좌우로 확대된 실루엣이며 뒤에는 와또 주름을 풍성하게 하였다(그림9). 대개 가슴은 V자형으로 벌어지고 스커트는 A형으로 벌어져 그 속에 언더 스커트가 보이게 한 것으로 이는 루이 15, 16세 때 프랑스 궁정의 공복, 극장출입용 의상, 무도복 등으로 사용되었고 1774년을 정점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궁중에서 사용되었다.³⁷⁾

1750~1760년대는 풍파두르 부인에 의해 여성적인 성격이 로브 아라 프랑

34) 정홍숙, op.cit., p.245.

35) Ibid., p.245.

36) 불량쉬 페인,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 까치글방, 1997), p.469.

37) 정홍숙, op.cit., p.247.

세즈에서 최대한 표현되었다. 꼭 맞는 바디스는 거대한 빠니에(그림10)를 동반한 스커트와 대조를 이루고 네크라인은 깊게 파여졌다. 특히 옷감의 부풀린 느낌에 러플, 꽃, 레이스, 리본, 트리밍 등으로 장식을 하여 그 우아함과 화려함은 의상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로코코 최성기의 의상을 대표한다. 1730~1740년대는 풍파두르 부인의 단정하고 부드러운 낮은 머리 형태가 유행이었으나 1760년대부터는 뺏뺏한 컬과 파우더를 사용하여 앞이마 위를 계란모양으로 높이 올렸다(그림11). 1770년경 로브 아 라 뿔로네즈(robe a la Polonaise)는 폴란드 민속복에서 힌트를 얻어 1776~1787년까지 성행했던 것으로 빠니에가 소멸하는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2).³⁸⁾ 이는 루이 16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취향을 보다 자유롭게 표출하게 되면서 로코코 복식은 더욱 화려하고 다양하며 연극적으로 꾸몄다. 젓 짜는 소녀의 접어올린 스커트와 닮은 모드를 등장시킨 것으로 이 가운은 오버드레스의 스커트 자락을 두 곳에서 위로 걷어 올려 뒤 중심과 양옆에 커다란 퍼프가 모두 세 개가 형성되는 것으로 와프 주름과 함께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나타내는 독특한 기법이다.³⁹⁾ 또한 궁중 복식은 빠니에 두블로 옆을 최대로 확대하고 허리선보다 더 위로 활 모양을 그리며 뒤쪽에서는 둥근 윤곽을 그리는 실루엣이 계속되었다.

1780년대는 궁중 복식에서만 커다란 후프와 장식이 계속 남아있고 빠니에의 부풀림이 뒤로만 집중된 꾸 드 크랭(cul de crin)형식의 허리받침으로 스커트의 부풀림이 적고 간편한 변화를 주게 되었다.

1780년대 나타난 것으로 로브 아 라 시르까시엔느(robe a la Circassienne)는 로브 아 라 뿔로네즈의 변형으로 옷 길이가 짧아져서 다리가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복식 중에 다리가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아름답게 장식된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38) 박춘순, op.cit., p.80.

39) 신상욱, op.cit., p.233.

로브 아 라 까라꼬(robe a la Caraco)는 영국식 부인 승마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투피스형 로브의 일종이다. 앞 목둘레의 러플과 피슈 장식을 앞으로 돌출 시키고 뒤는 부풀린 스커트와 허리가 꼭 끼게 되는 자켓의 페프럼이 버슬실루엣을 이룬다.

로브 아 랑글레즈(robe a l'anglaise)는 영국식 가운으로 프랑스에서는 1778년경부터 널리 입혀졌고 빠니에를 입지 않고 착용했으나 스커트에 잔주름을 많이 잡아 뒤쪽이 약간 버슬 실루엣이 되었다(그림13).⁴⁰⁾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a la Reine)는 마리 앙투아네뜨가 처음 입은 가운으로 1781년부터 매우 유행되었다. 네크라인은 깊게 데꿀데 되어 러프로 세워 달았고 풍성한 형태의 소매는 가운데를 한번 매 주어 귀여운 분위기를 준다. 스커트는 개더를 잡아 풍성한 스타일에 새쉬 벨트(sash belt)를 매었다.

르덴고트 가운(Redingote gown)은 이제까지의 여성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적 디자인으로 1787년경에 소개 되었다. 이 의상은 영국의 남성복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여자 코트의 시조가 되었다.⁴¹⁾

단정해진 복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1780년대는 강조의 초점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모자 또는 그 밖의 장식물들로 옮겨졌다.⁴²⁾ 케이프 형식의 외투인 펠리스(pelisse)는 가장자리의 털 장식으로 따듯함과 아름다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로코코 시대 여성복식의 실루엣은 콜셋과 스커트를 받치는 빠니에에 의해서 변화하였고 위에 입혀진 로브와 스토머커, 언더 스커트에 장식된 디테일로 완성되었다.

2) 장식

40) Ibid., p.237.

41) 정홍숙, op.cit., pp.249~250.

42) 블랑쉬 페인, op.cit., p.496.

로코코 시대는 유럽 복식사에 있어 처음으로 불균형의 장식이 붙고 직선, 직각은 될 수록 피하고 경시되던 꽃장식이 다시 유행하였다. 꽃 장식이 유행하여 심지어는 바디스의 안감이나 코르셋에 주머니를 달아 작은 물병을 넣어서 꽃이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게 하였다. 어깨 위어나 목에 두른 리본에도 꽃을 달았고 치마 단에도 꽃 줄로 장식한 것이 있다.⁴³⁾

1730년대와 1740년대에는 더욱 넓어진 네크라인을 레이스 밴드나 핏슈(fichu) 장식을 하였고 드레스의 앞가슴은 레이스, 꽃, 리본,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때로는 스토머커 대신에 다마스크나 수를 놓은 실크 코르셋을 입기도 하였다. 여기에 3~4겹의 레이스 러플이 층층으로 장식된 앙가장뜨(engageantes)와 스토머커, 스커트의 A형 트임의 가장자리, 언더 드레스에 많이 사용된 팔발라(falbala)는 18세기 로브에서 가장 큰 장식요소를 이룬다(그림14). 뽕빠두르 부인의 영향력이 커진 18세기 중엽에는 프릴이나 러플 등의 주름 장식, 레이스, 리본, 꽃, 플라운스 등의 장식요소로 여성미의 극치를 이루었다. 즉 넓게 파인 스퀘어 네크라인, 리본 장식으로 꾸며진 에셸(echelle) 스토머커, 네크 밴드, 이제까지 표면장식을 하지 않았던 로브의 앞자락은 러플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매우 복잡한 디테일과 연속되는 곡선의 결합으로 돋보였다.⁴⁴⁾ 진주를 사용해서 귀걸이, 목걸이, 네 줄로 된 팔찌, 머리 장식을 하였다.

1770년대는 마리 앙투아네뜨가 유행을 주도 하던 시기로 화관, 꽃 줄 장식들과 프루팅, 플라스틱(plastics), 복잡하고 정교한 실크 술 장식, 털 등으로 요정 이야기와 같은 분위기를 내도록 하였다.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많이 파인 네크라인은 레이스의 프릴이나, 플루팅, 메디치 칼라(혹은 스탠딩 러프)를 닮은 위로 솟은 레이스의 러플 등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다.

로브 아 라 뿔로네즈의 스커트는 3부분으로 나누어 끌어올리는 장식 끈

43) Ibid., p.475.

44) 정홍숙, op.cit., p.247.

은 당김에 따라 스커트의 곡선을 아름답게 조절할 수 있고 그 끝은 태슬(tassels)과 로제트(rosette)로 장식하였고 소매 끝은 리플로 장식하였다. 이런 장식적 요소는 머리에 까지 로코코특성을 살려서 18세기 중반 풍과두르 형태의 낮은 머리 위에 레이스나 리본을 장식했으나 마리 앙투아네트 시기에는 높이 올린 머리에 깃털로 장식하고 월계수로 둥글게 감싼 루프를 엮는 등 1780년대가 되면 철사, 새의 깃털, 리본, 보석, 조화, 배의 모형, 과일 등을 장식하여 건축적인 머리형태(그림15)로 장식미를 표현하여 당시를 대표하였다⁴⁵⁾. 이로 인해 그녀의 헤어 패션은 모든 살롱과 궁정에서 모방되었다.

양가장뜨와 팔발라를 대표적인 장식 요소로 하여 리본, 꽃, 플라운스 등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한 벌에 함께 사용되어 보다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3) 소재

18세기 복식이 그토록 화려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대의 직물공업을 주로 한 산업혁명의 힘이 컸으며 기술혁신에 의해 생산과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섬유부문에 있어 방적기, 직조기의 새로운 발명은 종래의 폭이 넓은 직물을 수직기에 비하여 10배의 생산 속도로 직조해 낼 수 있었으므로 근대복식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⁴⁶⁾ 루프와 리본의 직기는 17세기에 발명된 이래 1765년경 사실상 자동화 되어 리본 생산은 양과 질이 함께 향상되어 귀족 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까지 성행하게 된다.

17세기의 균일한 형태의 루프장식은 다종 다양한 모습으로 장식되어 변화를 주었고 레이스 직조 방법이 개량되어 섬세한 것도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되어 복식뿐 아니라 침구에 까지 풍부하게 나타났다. 17세기 이래 프

45) 허갑섭, 복식문화와 복장(서울: 이룸, 1998), p.129.

46) 신상욱, op.cit., p.217.

랑스의 견직물은 리용을 중심으로 생산되었고 자카드 직기로 복잡한 문양의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장식예술의 모티브인 로카이유는 직물에 섬세하게 표현되었는데 주로 사용된 소재는 태피터(taffeta), 다마스크(damask), 브로케이드(brocade), 새틴(satin), 실크(silk), 벨로아(velours) 등으로 로코코의 여성스러움과 화사함을 더해 주었다(그림16).

18세기에는 중앙아시아 및 극동아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 짐으로 유럽도 큰 영향을 받아 직물에서도 좀더 가벼운 재질, 신비롭고 밝은 분위기의 직물과 프린트된 면직물이 18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18세기 로코코 복식은 두터운 질감보다 가벼운 직물을 선호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미감을 표현하였고 로브의 소재로는 실크, 새틴, 깡검(gingham), 모헤어 등이 많이 쓰였고 줄무늬, 꽃무늬가 있는 실크, 인도산 면직물이 인기였다. 또한 뽕빠두르가 즐겨 입었던 꽃무늬가 있는 프린트한 실크는 뽕빠두르 타프타(pompadour taffeta)로 고유한 이름으로 남아있다.⁴⁷⁾

직조를 위한 기계공업에 있어서 울(wool)보다는 코튼(cotton)이 더욱 발전했다. 이와 같은 면직물의 대한 열광은 다양한 염색 기술의 발달을 가져와 무늬 있는 면직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평범하다고 생각되었던 면직물이 크게 유행되어 18세기 프랑스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무늬가 날염된 면직물의 수입과 재직을 제한하는 법률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면직물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켜 엄청난 가격으로 진짜 사치품이 되어 수입 금지가 있었던 때도 뽕파두르는 자신의 방을 면직물로 장식하였다.⁴⁸⁾ 슈미즈 가운은 얇고 가벼운 실크나 머슬린, 면직물을 사용하였다.

기계공업과 직기의 발달로 가볍고 화려한 자카드 견직물과 프린트된 면직물이 크게 유행하였다.

47) 신상옥, op.cit., p.219.

48) 블랑쉬 페인, op.cit., p.481.

4) 문양

로코코의 장식요소인 로카이유(rocaille)는 직물문양에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인간의 취미를 무늬에 까지도 표현하였다. 자갈한 문양, 작은 크기의 꽃문양, 신비하고도 밝은 분위기, 여성적이면서 감각적인 세련된 화려함으로 플로럴(floral) 패턴은 자유분방하며 춤추듯 경쾌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고 좌우 비대칭에 아칸서스의 잎과 같은 곡선을 가미하여 유연한 S자곡선의 로코코 양식의 전형이 탄생되었다. 주로 사용한 문양은 꽃다발, 꽃과 잎의 연속무늬, 꽃피는 나무와 건축물, 꽃과 과일, 꽃과 리본, 카네이션의 연속무늬, 전원의 풍경, 와또(Watteau, J.A)의 회화에서 “키테라섬으로서의 항해”의 주제를 묘사한 무늬 또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문양이 유행했는데 중국인들의 생활모습, 인물 풍경, 아이들의 모습, 파고다 등이 주된 모티브로 애용되어 의상용이나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감정을 소재에 미적으로 표현하였다.⁴⁹⁾

직물 문양은 수요층의 요구와 디자이너들의 훌륭한 창작력과 직조계의 노력의 대가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직기에 의해 짜여 졌다기 보다 그린 것처럼 잘 처리된 것은 과학적이고 안목이 높은 경지에 도달한 디자이너들의 훌륭한 작업 결과였다.⁵⁰⁾

로코코 초기에는 꽃보다 잎사귀들이 중심이 된 복잡하고 호화찬란한 느낌으로 여러 종류의 잎사귀들이 각양각색으로 뒤섞여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17>은 전형적인 루이 15세 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당시 정원에 장식되었던 로카이유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점차 문양은 꽃송이나 꽃다발, 꽃가지, 줄무늬 등으로 바뀌고 농담의 표현으로 입체감이 잘 나타나게 되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1750년 이후에는 꽃가지, 꽃나무, 꽃바

49) 허갑섭, op,cit., p.122.

50) 홍을미, Rococo 직물 무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p.41.

구니, 꽃병, 리본, 격자무늬, 시누아즈리 등의 문양이 더욱 작아져서 섬세하며 우아한 감각으로 세련되어진다. 바탕의 여백이 많아져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느낌을 주며 사실성을 강조하여 생동감을 보인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줄무늬에 작은 꽃무늬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루이 15세 초기의 문양은 꽃무늬가 전체적으로 큰데 비해 차츰 연대가 경과하면서 꽃문양이 작아지고 당시 유행하였던 리본의 장식을 창작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그림18).⁵¹⁾

로코코시대의 플로럴 문양은 S자형의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나타나며, 자유분방하고 화려함을 표출하였다. 모티브는 실제 크기의 꽃 모양이며, 여러 종류의 꽃이 한데 묶여 마치 정원의 꽃들이 만발한 듯한 느낌을 주며 호사스럽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⁵²⁾

당시의 직물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양식은 다른 로코코 직물 무늬들과 함께 혼합된 형태로 많이 디자인 되었고 중국에 실크를 주문할 경우 기 그 시기에 유행한 직물 디자인을 중국에 보내 중국 예술가들에게 모방시켜 그리게 한 것으로 꽃무늬가 주된 것 이었지만 과일이나, 새, 곤충 등의 그 당시에 유행한 로코코 문양으로 색상이 화려하고 다채로웠다.⁵³⁾

로카이유 문양은 직물에도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플로럴 패턴, 시누아즈리 문양과 함께 사용되어 밝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었다.

5) 색채

색채에서도 위엄이 있고 어두운 색조에서 높은 명도의 부드러운 색조로 바뀌면서 전 시대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었다. 18세기 초 뉴턴(Issac Newton)이 빛의 3원색을 알아내고 다시 존 마이어(Johann Mayor)가 이를

51) 허갑섭, op,cit., p.125.

52) 이선화, 바로크 로코코시대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p.135.

53) 정홍숙, 박형애, op,cit., p.163.

혼합하는 원칙을 세워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91가지의 명암과 9,381가지의 색상을 얻었다. 이러한 과학적 색채 감각으로 인해 직물에 있어 색채의 조화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많이 애용되었던 색은 파스텔 톤으로 옅은 장미색, 옅은 청색, 빛바랜 녹색, 자색, 황색의 노란색 계통의 여성적인 색이었다.

은근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 장미색, 녹색 등은 부드러운 뉘앙스가 넘치며 배색이 매우 세련되었다. 루이 15세 시대의 짙은 붉은색에서 갈색에 이르기까지 붉은색 계통의 색상 및 푸른색은 유명하며, 루이 16세 때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하였다.⁵⁴⁾ 또한 페루시아와 인도는 로코코 시대의 색채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⁵⁵⁾

로코코 시대의 초기에는 바탕색으로 자주색, 황금색, 북청색, 황갈색, 짙은 갈색, 단풍색과 같이 짙은 색이 대표적이며 문양은 옅은 베이지, 옅은 장미색, 옅은 청색, 은회색 등이 옅은 색이어서 바탕과 문양은 강한 대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복잡하면서 단조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꽃문양으로 바뀌면서 바탕색으로는 연 노랑색, 옅은 베이지, 옅은 하늘색, 금색, 초록색, 옅은 갈색처럼 옅은 색으로 바뀌었고 문양의 색은 빨강색, 산호색, 짙은 청색, 노랑색, 황금색, 자주색, 갈색 등의 비교적 짙은 색으로 아주 다양해졌다. 색의 조화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세련되어졌다.

대개 색채의 명칭은 거기에 관련된 문화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로코코 색채의 명칭은 특이한 것이 많았다. 요정의 배, 여자의 엉덩이, 처의 배, 슬픈 여자친구 같은 이름이 유행한 것은 경박한 향락이 유행해서 나온 것이었다.⁵⁶⁾

로코코 복식은 언더 스커트와 오버 드레스로 구성되는 로브로 대표될 수 있으며 안에는 콜셋과 빠니에로 허리를 극도로 조여 주고 힙을 부풀리는 X

54) 정홍숙, op,cit., p.240.

55) 홍을미, op,cit., pp.20~21.

56) 조규화, 복식미학(서울: 수학사, 1993), pp.14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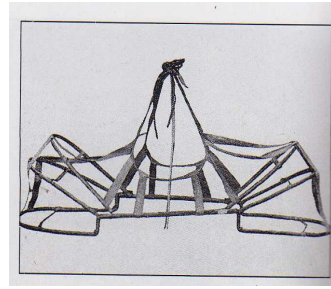
자 실루엣을 형성 하였으며 초기에는 벨 모양의 실루엣이던 것이 중기에는 좌.우로 확장된 원통형의 실루엣, 후기가 되면서 강조점이 뒤로 옮겨가는 실루엣을 보였다. 이러한 로브는 18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꽃장식과 파발라, 앙가장뜨를 비롯해 레이스, 리본, 러플 등의 모든 장식요소가 넘칠 듯이 장식되어 로코코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소재의 색상도 진한 색 보다는 파스텔 톤의 옅은 색상을, 직물도 얇은 면직물이나 화려한 자카드, 문양도 작고 섬세한 꽃문양이 주를 이루어 우아한 여성적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8> 와또 가운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297



<그림 9 > 로브 아 라
프랑세즈
www.marguise.de,
2005.10.05



<그림 10> 빠니에 두블
서양복식문화사, p.254



<그림 11> 사보이의
마리아 테레사
서양복식문화사, p.268



<그림 12> 로브 아라 폴로네즈
서양복식문화사, p.247



<그림 13> 로브 아 랑글레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301



<그림 14> 파발라 장식
서양복식문화사, p.244



<그림 15>
18세기 후반여자머리장식
서양복식문화사, p.267



<그림 16> 브로케이드
Fashion, p.37



<그림 17> 로코코시대의 문양
복식문화와 복장사, p.124 서양복식문화사, p.237

3. 디테일의 종류와 유형

1) 장식의 의미

일반적 의미로 장식이란 허식이나 겉치레 등 외형만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돈’, ‘정리’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장식이라는 용어 중 ornament는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한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식품이나 장신구, 또는 장식 무늬를 말하는 것이다.⁵⁷⁾ 장식은 본래 무엇인가를 치장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장식이 장식된 사물과 조화되어 미적 통일체를 이루어 가는 동시에 그 본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고유의 미를 발휘하기도 한다.⁵⁸⁾

장식은 외적인 형태에 내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 이런 장식적 특성은 형태적, 심리적, 상징적 측면으로 적용되고 있다.

첫째, 장식의 형태적 측면은 시각적 쾌감을 위해 장식의 봉사적인 역할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인체와 결부 되어 복식 자체가 미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⁵⁹⁾

둘째, 장식의 심리적 필연성을 리드(Read)⁶⁰⁾는 인간에게는 빈 공간을 메우고 싶어 하는 감정이 존재하며 또한 채색되고 장식된 초기의 복식은 선한 정령의 힘을 불러 오고 악귀를 물리치는 목적에서 처음 사용되어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한 마력적인 보호 수단으로 장식이 사용 되었다⁶¹⁾고 하였다.

57) Wolfhart Henkmann and Kontad Lotter, *Lexikon der Aesthetik*, 김진수역, 미학 사전(서울: 예경, 1998), p.300.

58) 竹内敏雄, *美學辭典*, 안영길 외역, 미학. 예술학 사전(서울: 미진사, 1993), pp.247~248.

59) Wolfhart Henkmann and Kontad Lotter, *Lexikon der Aesthetik*, op.cit., p.301.

60) Hert Read,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design*, 정시화역, 디자인론(서울: 미진사, 1979), p.49.

61)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역, 의복과 언어(서울: 경춘사, 1986), p.25.

셋째, 상징적 특징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과시의 목적들이 장식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이렇듯 장식은 시각적 쾌감을 주는 형태적 측면, 공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의 심리적 측면,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측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식적 디자인의 종류와 유형

장식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나 일반적으로 의복의 장식은 크게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으로 구분되며 실루엣을 옷의 외형이라 한다면 디테일은 그 안의 장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디테일은 “세부, 세목, 부분”의 의미로 의상의 세부선의 세부장식으로 의복을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바탕천으로 제작되어지는 장식을 말하며,⁶²⁾ 트리밍은 이미 만들어진 장식품 혹은 그 외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만들어 달거나 만들어져 있는 장식을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⁶³⁾

디테일은 성격상 크게 의복의 일부분으로서의 네크라인(neckline), 칼라(collar), 슬리브(sleeve), 커프스(cuffs), 스커트(skirt), 팬츠(pant) 등 의복의 형을 이루는 부분인 디테일(구조적 디자인)과 플리츠(pleats), 프릴(frill), 파이핑(piping), 셔링(shirring), 핀턱(pintucks) 등과 같은 기교적인 세부장식(장식적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⁶⁴⁾

(1) 디테일

①구조적 디자인으로서의 디테일

구조적 디자인으로서의 디테일은 평면 상태의 옷감을 인체에 맞도록 입

62) 공미란, 안인숙공저, 패션 디자인(서울: 예학사, 2003), p.57.

63) 유송옥, 복식 의장학(서울: 수학사, 1995), pp.85~116.

64) 이호정, 복식디자인: 기성복 디자인에의 어프로치(서울: 교학연구사, 1997), p.40.

체화시키기 위한 구조상의 디자인을 말한다.⁶⁵⁾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에서는 실루엣의 결정과 실루엣안의 각 부분의 크기나 형태의 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네크라인(neckline)은 턱, 목, 목둘레 그리고 때때로 어깨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의 아래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네크라인은 목의 길이와 두께 뿐 아니라 외견상의 얼굴형에 영향을 미친다. 네크라인은 일반적으로 선의 주된 방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효과에 따라 분류된다.⁶⁶⁾ 라운드(round), 브이(V), 유(U), 보트(boat), 데콜레뜨(decolette), 홀터(halter), 카울(cowl) 등 다양하다.

칼라(collar)는 본래 원통 모양의 목을 감는 것의 총칭으로 재료와 상관이 없으며 목판에 연결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칼라라 칭할 수 있다.⁶⁷⁾ 칼라는 목 주위를 장식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신체 장식의 전체적인 무드를 지배하는 힘이 크다. 스탠드(stand), 셔츠(shirt), 테일러드(tailored), 플랫(flat), 타이(tie) 등이 있다.

슬리브(sleeve)는 어깨로부터 연결되는 팔의 동작과 팔꿈치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는 신축성 기능 뿐 아니라 의복의 외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므로 장식적인 의미를 가진다.⁶⁸⁾ 이는 슬리브의 길이, 재단 방법, 달림의 위치나 구조, 장식의 모양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되어 민소매(sleeveless), 두장소매(two piece), 라글란(raglan), 티어드(tiered), 머메루크(mameluke), 퍼프(puff) 등이 있다.

스커트(skirt)란 일반적으로 하반신을 감싸는 허리옷으로 슈트, 투피스 등과 조합된 옷의 일부를 말하나 상. 하가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드레스나 코트 등의 허리선에서 아래로 드리워진 부분을 총괄하는 경우도 있다.⁶⁹⁾

65) 이은영, 복식 의장학(서울: 교문사, 1998), p.263.

66) Marian L.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역, *Visual Design in Dress* (복식의 시각 디자인)(서울: 경춘사, 1990), p.117.

67) 石山彰, *Costume Lexicon for fashion Business*(東京: ダヴィッド社, 1982), pp.145~146.

68) 성수광 외4인, 패션 디자인학의 이해(서울: 교문사, 1999), p.119.

타이트(tight), 플레어(flare), 버슬(bustle), 고어드(gored), 개더(gather), 랩(wrap), 페프럼(peplum), 배럴(barrel) 등 다양한 종류로 다채로운 변화를 기대 할 수 있다.

팬츠(pant)는 하의로 양쪽 다리가 분리된 형이며 슬랙스(slacks), 판탈롱(pantalon), 트라우저즈(trousers)가 이에 속하며 벨 보텀(bell bottoms), 벌룬(balloon), 니커보커즈(knickerbockers), 트렁크(trunks) 등이 있다.

그 외에 포켓(pocket), 허리선(waistline), 커프스(cuffs), 버튼(button) 등과 기타 액세서리인 벨트, 모자, 장갑, 가방, 신발, 스카프 등이 토탈 코디네이션으로 장식적 요소가 되고 있다.

69) 이호정, 복식 디자인(서울: 교학연구사, 1997), p.55.

<표 1> 구조적 디테일의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징
neck-line		라운드(round), V, U, 보트(boat), 데콜레뜨(decolette), 홀터(halter), 카울(cowl) 등	실루엣의 결정과 실루엣안의 각 부분의 크기나 형태의 결정
collar		스탠드(stand), 셔츠(shirt), 테일러드(tailored), 플랫(flat), 타이(tie) 등	
sleeve		민소매(sleeveless), 두장소매(two piece), 라글란(raglan), 티어드(tiered), 머메루크(mameluke), 퍼프(puff) 등	
skirt		타이트(tight), 플레어(flare), 버슬(bustle), 고어드(gored), 개더(gather), 랩(wrap), 페프럼(peplum), 배럴(barrel) 등	
slacks		벨 보텀(bell bottoms), 벌룬(balloon), 니커보커즈(knickerbockers), 트렁크(trunks) 등	

② 장식적 디자인으로의 디테일

장식적 디자인으로의 디테일은 의복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성이 끝난 후에 덧붙여지기도 한다.⁷⁰⁾ 구조적 디자인에 속하는 칼라, 포켓 등의 디테일도 선의 변화나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 할 경우 장식적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a. 프릴(frill)

프릴은 주름을 잡아 붙인 가장자리 장식으로 리플보다 폭이 좁다. 좁은 천의 한쪽을 개더를 잡아 칼라, 커프스, 도련 등에 덧붙여 잔물결처럼 만든 장식이다.⁷¹⁾

b. 드레이프(drape)

드레이프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부정형의 주름이다.⁷²⁾

c. 플리즈(pleats)

플리즈는 천을 접어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잡은 정형의 주름으로 장식과 입체감을 겸하며 주름 방향이나 모양에 따라 인버티드, 박스 플리즈, 아코디언, 나이프 등 여러 가지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⁷³⁾

d. 턱(tuck)

턱은 접어 박은 주름으로 턱 옷감의 넓이 또는 길이를 줄이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주름을 접어 박은 것을 가리킨다. 대개 장식을 목적으로 할 때 이용되지만 옷을 몸에 피트(fit)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된다.⁷⁴⁾

e. 러플(ruffle)

러플은 꾸깃꾸깃하게 하다, 주름을 잡다 의 의미로 옷의 가장자리나 솔

70) 이은영, op,cit., p.271.

71) 공미란, 안인숙공저, op,cit., p.70.

72) 패션 큰 사전편찬위원회, 패션 큰 사전(서울: 교문사, 1999), p.102.

73) 공미란, 안인숙공저, op,cit., p.70.

74) 오소정, 터킹(tucking)을이용한 현대복식디자인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3.

기 부분에 개더나 플리츠로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것이다.⁷⁵⁾

f. 플라운스(flounce)

플라운스는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만든 물결과 같은 리플을 말하며 칼라, 커프스, 블라우스의 앞부분, 스커트 단에 활용한다.

g. 셔링(shirring)

셔링은 천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재봉틀로 여러 단을 박아 밑실을 잡아당겨 줄이는 방법으로 개더가 조밀하게 모여진 상태로 평행으로 여러 줄 만들면 된다.⁷⁶⁾

h. 러쉬(ruche)

꽃줄 장식으로 레이스나 얇은 감을 일정한 넓이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후 중심부에 개더나 주름이 생기게 하는 주름 장식이다.⁷⁷⁾

i. 스모킹(smocking)

스모킹은 천을 봉축하여 올 사이사이로 자수 실을 넘겨 여러 가지 무늬를 여미거나 퀘맨 장식적인 주름이다.⁷⁸⁾

j. 퀴팅(quiting)

퀴팅은 겹감과 안감 사이에 얇은 솜을 넣고 무늬를 만들어가며 누비는 것으로 재봉틀로 누비거나 손바느질로 누빈다. 누빔 선에 의한 음영으로 장식 효과가 난다.⁷⁹⁾

k. 장식 상침(top-stitching)

장식상침은 칼라, 포켓, 앞단, 요크선, 플리츠, 박음선 등과 같은 구성선을 따라 한 줄 또는 여러 줄의 상침을 하는 것을 말한다.⁸⁰⁾

75) 공미란, 안인숙 공저, op.cit., p.70.

76) Ibid., p.70.

77) Ibid., p.70.

78) Charlotte 외 1인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Books, 1998), p.529.

79) 이은영, op.cit., p.277.

80) Ibid., pp.273~274.

l. 파이핑(piping)

파이핑은 솔기를 구성할 때 다른 옷감을 바이어스 테이프로 잘라 넣어 박아 솔기선이 강조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바이어스 테이프 속에 코드를 넣어 밖으로 보이는 선이 두드러지게 한다.⁸¹⁾

m. 패거팅(fagoting)

패거팅은 패겟(fagot)은 '묶음, 다발, 묶는다'의 의미로 의상에서 '주름'을 의미한다. 옷감 조각의 사이를 떼어놓고 배치한 후 그 사이를 실 등으로 잇대어 붙인 디테일 수법을 의미한다.⁸²⁾

n. 스칼럽(scallop)

스칼럽은 가리비 조개의 껍질을 뜻하며 과상적인 모양의 가장자리 장식을 뜻한다.⁸³⁾

o. 자수(embroidery)

자수는 색채의 다양성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바탕 직물과 스티치에 의한 개성적인 재질감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꽃을 주제로 한 모티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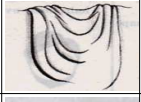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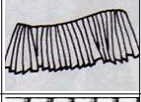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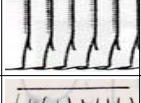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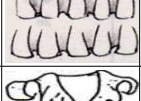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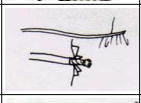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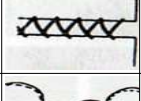



구조적 디자인은 디자인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며 인체의 구조를 존중하여 잘 이루어진 구조적 디자인 위에 장식적 디자인이 적절히 첨가되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81) Ibid., pp.273~274.

82) 조규화 외2인, op.cit., p.610.

83) 공미란, 안인숙공저, op.cit., p.76.

<표 2> 장식적 디자인으로서 디테일의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징
프릴		좁은 천의 한쪽을 개더를 잡아 가장자리에 고정	의복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성이 끝난 후에 덧붙여지기도 하여 의복을 장식
드레이프		직물의 유연성을 이용해 부정형의 주름이 생기도록 함	
플리즈		직물을 접어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잡은 정형의 주름	
턱		접어 박은 주름	
러플		프릴과 같은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며, 프릴보다 간격이 넓다	
플라운스		얇고 부드러운 천을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물결같은 형태로 만든다	
셔링		개더를 조밀하게 여러 줄 평행하게 만든다	
러쉬		리본 형태의 원단의 중심을 두 줄로 봉제하여 당겨서 양쪽으로 프릴이 생기도록 한다	
스모킹		직물위에 자수를 놓고 당겨서 만든 장식 주름	
퀼팅		옷감 사이에 솜을 넣고 바느질하여 엠보싱효과를 주는 장식기법	
장식 상침		포켓과 칼라 등의 위에 박음선이 보이도록 봉제하여 장식적 효과를 주는 기법	
파이핑		솔기 사이에 다른 직물을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끼워 박는 장식기법	
패거팅		옷감 사이를 떼어놓고 빈 공간을 엮어 만듦	
스캘럽		의복의 단을 연속적인 곡선으로 처리	
엠브로이더리		직물 위에 수실을 사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	

(2) 트리밍(trimming)

트리밍(trimming)은 디테일과 장식의 목적은 같으나 완성된 의복에 별도의 재료를 첨부하여 장식된 것으로⁸⁴⁾ 의복의 재료나 디자인이 단순한 경우에 포인트를 주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 브레이드(braid)

브레이드는 여러 가지 색채, 재질의 실이나 옷감을 꼬아서 만든 테이프나 끈으로 폭과 모양이 재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네크라인, 칼라, 앞단, 포켓 둘레 등 주로 구성 선을 따라 둘러 주어 디자인의 강조점을 이룬다.⁸⁵⁾

② 프린징(fringing)과 태슬(tassle)

프린징과 태슬은 장식술로 스톨이나 케이프 끝에 털실로 방울과 같은 모양의 술 장식을 다는 것을 뜻하며 울을 빼거나 가죽에 절개를 넣어 만드는 경우도 있다.⁸⁶⁾

③ 스팅클과 비드(spangle&beads)

스팽클과 비드는 반짝이는 금속조각인 스팅글이나 작은 구슬인 비드를 도안에 따라 옷에 꿰매어 붙여 장식하는 것이다.⁸⁷⁾

④ 모피(fur)

모피는 천연 또는 인조 모피를 의복의 일부에 고정 시키거나 또는 따로 사용한다.

⑤ 코사쥐(corsage)와 로제티(rosette)

코사쥐와 로제트는 꽃을 주된 모티브로 표현하는 것으로 코사쥐는 가슴이나 앞 어깨에 다는 꽃다발을 일컬으며 로제트는 장미 꽃 모양의 장식을 말한다

84) 김영자, 패션 디자인(서울: 경춘사, 1992), p.63.

85) 이은영, op,cit., p.278.

86) 조규화 외2인, op,cit., p.653.

87) 이은영, op,cit., p.279.

⑥ 리본(ribbon)

리본은 실크나 벨벳 등으로 만들어진 밴드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꼬여 있어서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⁸⁸⁾

⑦ 레이스(lace)

레이스는 실 같은 것으로 그물코를 만들어 엮거나 맺거나 하여 무늬를 형성해 나가는 구멍이 뚫린 천이다.⁸⁹⁾

⑧ 단추(button)

단추는 의복을 여미는데 쓰이며 지퍼(zipper)와 함께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⁹⁰⁾, 높은 장식성을 갖기도 하며 단추 구멍이 장식성을 갖기도 한다.

⑨ 아플리케(applique)

아플리케는 프랑스어로 ‘붙이다, 달다’의 뜻을 가진 말로 주로 천 위에 다른 천이나 가죽 등을 적당한 형태로 잘라서 깎거나 붙이는 기법을 말한다.⁹¹⁾

장식적 디자인이란 의복의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돕기 위하여 디테일 선을 특이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장식품을 덧붙임으로 강조점을 주어 개성을 부각 시키는 것이다. 이때 장식적 디자인은 구조적 디자인이나 인체 구조를 존중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한다










88) 윤석구, 신패션용어사전(서울: 주간디자인 신문(주), 2000), p.74.

89) Ibid., p.63.

90) Ibid., pp.105~106.

91) 정운길, 패션전문자료사전(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7), p.824.

<표 3> 트리밍의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징
브레이드		여러 가지 색채, 재질의 실이나 옷감을 꼬아서 테이프나 끈의 형태로 만듦
프린징과 테슬		장식술 또는 털실로 방울과 같은 모양의 술을 만들어 의복의 가장자리를 장식
스팽클과 비드		금속조각이나 구슬을 도안에 따라 옷에 꿰매어 붙여 장식
모피		다양한 털 소재를 의복의 부분에 부착
코사쥐와 로제트		꽃 모양을 앞가슴에 장식하거나 꽃다발로 만들어 의복의 부분에 장식
리본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되어있는 끈의 형태
레이스		그물코를 엮어 만든 비치는 직물
단추		여밈의 도구로서 또는 의복의 포인트로서 사용
아플리케		직물 위에 다른 직물을 덧붙여 장식

완성된 의복에 별도의 재료를 첨부하여 장식된 것으로 의복에 포인트 효과로 사용

4.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적 디테일의 특징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식의 개념이 ‘입는다’는 것에서 ‘치장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⁹²⁾ 이는 복식에서 실용적 가치 이외에 상징적 가치 또는 미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 측면과 의사 전달 적 측면을 표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치장한다’는 개념으로의 변화는 표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복식 착용의 동기가 되었던 장식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⁹³⁾ 이러한 특징들은 복식 디자인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선, 형, 공간, 색채, 형태, 재질과 결합하여 복식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는 부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이며 시 지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⁹⁴⁾ 복식의 미적 특성은 신체적 특징,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의복의 부분을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 정서 등을 전달하여 심리적 효과를 좌우한다.

패션 이미지는 패션을 통하여 나타나는 분위기나 연상 또는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조형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 무늬, 장식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연상을 의미한다.⁹⁵⁾ 정삼호의 의류학 관련 문헌⁹⁶⁾을 참고로 감성 이미지를 분류 정의해 보면 로맨틱(Romantic)은 여성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장식적인 소녀 취향의 패션이미지를 나타내며, 페미닌(Feminine)은 품위있고 정숙한 여성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미지, 엘레강스(Elegance)는 품위와 고상함이

92) 김민자,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의생활 문화’, 삼성문화, 18호, 1993, pp.22~25.

93) 박싯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디자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p.17.

94) 윤자현,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법과 표현 수준에 따른 복식의 이미지지각(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p.9.

95) 주소현, 여성패션 트렌드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p.50.

96) 정삼호, 김영숙. 현대패션모드(서울: 교문사, 1996)

돋보이는 온화하고 우아한 이미지, 섹시(Sexy)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킨 이미지, 매니쉬(Manish)는 남성복의 아이템을 발상의 원천으로 삼아 남성적인 느낌이 강조된 패션 이미지, 클래식(Classic)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대중성을 무시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디자인과 유행에 앞선 독창적이고 작품성 위주의 도전적인 이미지, 에스닉(Ethnic)은 각 나라의 고유 의상과 종교적 상징에서 모티브를 얻어 표현된 민속적인 이미지, 내추럴(Natural)은 지나친 가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런 이미지, 캐주얼(Casual)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복을 표현한 이미지, 액티브(Active)는 운동감을 원천으로 하여 기능성을 중시한 활동적인 패션이미지를 말한다.⁹⁷⁾

로코코 시대에는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장식 예술 분야에서 세련된 예술성이 나타날 수 있었다. 복식이 개인의 문화적도로 작용하여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띠게 되어 로코코 복식은 의복을 입는 자체보다 예술성에 가치를 두어 로코코의 또 하나의 예술 분야로 간주하여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로코코 복식에 사용된 디테일에는 러플, 플라운스, 앙가장, 팔발라, 리본, 플리즈, 엠브로이더리 등이 있으며, 각각의 디테일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하나의 복식에 사용되어 로코코 복식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 장식은 이 시기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쉬미즈의 목둘레와 소매, 단 등은 화려한 레이스, 프릴 등으로 장식되었다. 러플이나 프릴은 한쪽에 개더를 잡음으로 연속적인 울동감을 느끼게 하여 얇은 선들은 다소 경쾌하고 섬세한 울동감으로⁹⁸⁾ 로맨틱한 이미지를 주지만 여러 겹 길이 차이를 주어 겹쳐서 사용하면 플라운스

97) Ibid., pp.125~130.

98) Marian L.Davis, op.cit., p.306.

와 같이 엘레강스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주게 된다. 슈미즈 아 라 렌느 (chemise a la reine))의 목선 데콜테에 러플을 메디치 칼라처럼 세우고 스커트 단에는 플라운스를 장식⁹⁹⁾ 하여 여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그림 18).

양가장뜨는 소매 끝에 다는 3~4겹의 층을 이루는 레이스 러플로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소매 안쪽 가까이에 리본을 달아 우아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 팔발라와 함께 로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⁰⁰⁾(그림 19).

팔발라는 형겅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만든 트리밍으로 스토머커와 스커트 트임의 가장자리, 페티코트드레스에 중심적으로 사용되어¹⁰¹⁾ 팔발라의 주름의 연속적 모음이 다시 곡선의 리듬을 이루며 꽃이나 리본을 곁들여 여성적이고 엘레강스한 느낌을 표출하였다(그림 20).

리본 장식은 계속해서 사용되었는데 크기가 다른 리본을 스토머커 위에 크기 순으로 배열해 장식한 에셸(그림 21), 혹은 같은 크기의 리본으로 스토머커를 전부 메운 것, 커다란 리본을 가슴에 하나 매 단 것 등 주로 귀여운 이미지를 주지만, 네크밴드, 팔발라 장식 가운데 리본 장식이 함께 사용되어 우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플리즈(pleates)는 여러 장식요소 가운데 직선으로 표현된 디테일일 수 있고 구조적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이며 반복되는 선의 효과가 조형 감을 갖게 한다. 보통 주름을 겹치게 하거나 박스 플리즈 양쪽에서 2~3개의 주름을 약간 떨어지게 잡거나 한 와또 플리즈는 로브 아라 프랑세즈를 특징지어주는 우아하게 흐르는 듯한 효과를 내었다(그림 22).¹⁰²⁾

팔발라의 정교한 플리즈는 좁은 박스 플리즈를 고정시킨 형태의 반복으로 이질적인 소재로의 변화를 보였다. 카라코(caraco)의 소매부분은 소매

99) 정홍숙, op,cit., p.244.

100) Ibid., p.244.

101) Ibid., p.249.

102) 블랑쉬 페인, op,cit., p.465.

끝단이 주름장식으로 되어있고 고리나 단추로 소매 안쪽 부분을 접어 올려 팔꿈치 위로 완만하게 모양을 잡아¹⁰³⁾ 귀엽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엠브로이더리(embroidery)는 스토퍼커나 코르셋 등에 꽃을 주제로 장식되었는데 이는 실크나 면사의 다양한 색사를 비롯해 자수로 장식하여 우아함을 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리본, 테이프, 끈, 로프 등 입체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소재를 함께 장식하여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에스닉하고 동양적 이미지 표현에 많이 사용되었고 최근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에 응용 된다(그림 23).

플루팅, 플라스틱은 1750년에서 1775년 사이에 흔히 사용되었던 장식의 하나로서 <그림 24>의 오버드레스에 있는 소시지 모양의 장식은 드레스의 감 자체에서 양각으로 튀어나온 것으로서, 3차원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패드를 넣은 것이다.¹⁰⁴⁾

드로우스트링(drawstring) 기법은 로코코 시대에서는 로브 아 라 폴로네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스타일은 오버드레스를 여러 개의 드레이프(drape)로 부풀려서 양옆과 힙쪽에 놓이게 하였으며 오버스커트는 밑바닥에 바느질된 링을 통해 웬 코드를 커튼처럼 잡아당겨 옷자락을 원하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그림 25).¹⁰⁵⁾ 커튼을 드리운 것 같은 주름은 우아한 드레이프를 형성하고 풍성한 볼륨으로 여성들의 모습을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였다.

새쉬 벨트의 새쉬는 천을 주름지게 접어 맨 허리띠로 로브 아 라 슈미즈는 개더를 잡아 풍성하게 한 스커트 허리에는 새쉬벨트를 댔다(그림 26).¹⁰⁶⁾

103) 최은경, Sewing Technique을 이용한 의상디자인연구:Stitching, Binding, Pleating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3), pp.23~24.

104) 블랑쉬 페인, op.cit., p.486.

105) 정홍숙, op.cit., p.248.

106) Ibid., p.250.

바인딩(binding)은 기하학적인 선 장식이며 가장자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크 장식 끈이나 금, 은, 색실 혹은 린넨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스토머커도 남성적인 형태를 흉내낸 V자형 네크라인, 장식 단추 등이 나타났는데 은도금 된 실을 꼬아 네크라인과 아래 가장자리를 천으로 휘감아 바인딩하고 손 스티치로 마무리하여 화려함이 더해졌다(그림 27).

태슬(tassel), 로제티(rosette) 로코코는 꽃장식이 주요장식이 되면서 스커트 앞부분이나 페티코트 등에 로제티가 화려하게 장식되고 로브 아라폴로네즈의 오버드레스 밑단을 잡아당긴 끝에 태슬이나 로제티를 장식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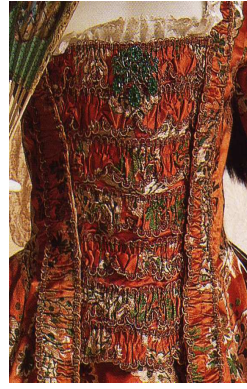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디테일은 러플, 플라운스, 앙가장뜨, 팔발라, 리본, 플리즈, 엠브로이더리, 플라스틱, 드로우스트링, 새쉬벨트, 바인딩, 태슬과 로제티 등으로 리본은 스토머커를 장식하는 것 뿐 아니라 팔발라와 함께 장식되어 한 벌에 다양한 디테일들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복식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8> 플라운스
www.marguise.de
2005.10.10



<그림 19> 양가장뜨
www.marguise.de
2005.10.10



<그림 20> 팔발라
Fashion, p.34



<그림 21> 에셀
www.marguise.de
2005.10.10



<그림 22>
플리츠



<그림 23> 자수
Fashion, p.47



<그림 24> 플라스틱
Fashion,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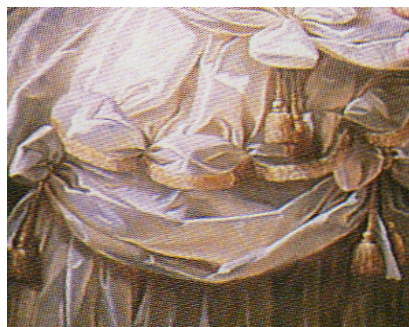
<그림 25> 드로우스트링
복식문화와 복장사, p.84



<그림 26> 새쉬벨트
www.marguise.de
2005.10.10



<그림 27> 바인딩
Fashion, p.45



<그림 28> 테슬, 로제티
서양복식문화사, p.246

5. 로코코 복식의 감성적 이미지 고찰

리포베스키(Lipovetsky)는 장식과 액세서리와 같이 복식의 세세한 부분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패션을 특징짓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취미와 개성이 표현된다고 언급하였다.¹⁰⁷⁾ 이처럼 장식적 디자인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표현하게 된다. 즉, 장식요소는 디테일 선의 특이한 변화를 통해 미적 표현을 극대화하고 시각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또한 로코코 복식에 표현된 디테일들은 따로 분리되어 각각의 의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 벌에 다양한 디테일 들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각 디테일들이 연출해 내는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복식에 표현되어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감성적 이미지를 로코코 복식에 사용된 디테일을 중심으로 로맨틱 환타지, 살롱 엘레강스, 관능적 섹시, 아방가르드¹⁰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로맨틱 환타지(Romantic fantasy)

로코코 시대에는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장식 예술 분야에서 세련된 예술성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복식이 개인의 문화 척도로 작용하여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로코코 복식은 의복을 입는 자체보다 예술성에 가치를 두어 로코코의 또 하나의 예술 분야로 간주하여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로코코 장식의 우아한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 요소들이 환상적으로 전개되어 조화를 이루며 화사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 되었다.

107) Gilles Lipovetsky, 이득재역, 패션의 제국(서울: 문예출판사, 1999), p.35.

108) 고현진의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18세기 로코코 복식을 살롱 엘레강스로 분류하였고 주소현의 '여성 패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분류하였음.

로코코 복식의 루프 장식은 과도한 리본이 다양한 모습으로 네크라인과 가슴, 스커트 등에 나타나면서 화려하고 감각적인 뉘앙스와 변화를 주었다. 가슴에서 허리까지 점차 크기가 달라지는 리본 보우가 장식을 되었는데 이를 에셀이라 하였다. 레이스로 이루어진 플라운스와 러플이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리본은 부차적인 장식이 되었다. 레이스 직조법의 개량으로 섬세한 레이스가 풍부하게 사용되어 섬세하고 여성적인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의 요소들, 리본이나 레이스, 프릴 등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는 여성복에 있어서 아름다운 낭만풍의 새로운 모드를 형성하였다.¹⁰⁹⁾ 특히 로코코시대의 프릴 장식은 여성의 상징으로 옷에서 프릴에 많을수록 여성의 가치가 올라갔으며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릴에 대한 호사의 극치를 단 적을 보여주었다(그림 9).

로코코 시대는 레이스, 꽃, 깃털, 리본 등의 모든 장식적인 요소가 한 벌의 여성복에 사용되었다. 슈미즈의 네크라인과 소매, 단 등은 화려한 레이스, 프릴 등으로 장식되었고, 스토머커에는 자수가 놓여지거나 하늘거리는 리본이 장식되었다. 스커트 버팀대인 빠니에는 리본, 레이스, 조화가 가득 달렸고 스커트의 앞트임 가장자리, 페티코트에는 앙가장뜨와 팔발라가 장식되었다. 뽕파두르에 의해 발전된 로브 아 라 프랑세즈에는 꽃, 레이스, 리본, 조화, 꽃 모양의 루프, 퀴팅, 트리밍, 플라운스, 진주, 자수 등이 네크라인이나 스커트 가장자리에 달렸다.¹¹⁰⁾ 로브 아 라 플로네즈는 오버 스커트의 밑단에 코드를 꿰어 커튼처럼 잡아 당겼고 끝에 태슬이나 로제티를 장식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은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a la reine)에는 네크라인의 데꼴테에 러플을 메디치 칼라처럼 세우고, 스커트 단에는 플라운스를 장식하였다. 외투인 펠리쎄(pelisse)는 앞여밈을 위만 끈이나 단추로 여미고 가장자리는 털로 장식했으며 후드가 달린 뽀르린느(pelerine)도 앞 목은 리본을 매고 가장자리에 털 장식을 하

109) 정홍숙, op.cit., p.242.

110) Ibid., p.247.

였다. 소재도 다양하게 날염된 가벼운 면직물이 유행하였고 바탕색은 점차
열어져 파스텔 톤을 형성하고 문양은 다소 짙은 색으로 다양해져서 화사하
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냈다(그림 29).

이렇듯 로코코 복식은 앙가장뜨와 팔발라를 중심으로 리본과 꽃이 서로
곡선을 이루어 연결되면서 무한한 파동을 이룬다.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요
소들은 신비롭고 밝은 분위기의 프린트된 면직물과 꽃 정원을 방불케 하는
화려하고 풍성한 문양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감을 주어 로맨틱 하면서도 환
상적인 이미지를 자아냈다.

2) 살롱 엘레강스(Salon elegance)

엘레강스는 세련된 기교를 보이는 의복의 공들인 치장과 더불어 귀족적
여유의 에토스(etos)의, 신체 운용의 테크닉에 의해 가시적으로 구현되며
사치성, 품위성, 세련성, 여성성, 조화성의 미적 가치를 갖는다.¹¹¹⁾

17세기의 궁정문화는 18세기에 와서 귀족중심의 자유로운 살롱문화에 주
도권을 내주게 되면서 당대의 예술의 영향을 받아 세련되고 우아함, 좋은
취향이 극도로 추구되었던 시기이다. 살롱에서는 항상 타인을 의식하여 서
로를 관찰하고 주목함으로서 행동방식과 취향에서 엘레강스하고 세련을 추
구하는 장이되었다.

18세기의 신체적 언어의 특징을 보면 날씬하고 생기 있는 용모, 부드
러운 자세의 경쾌하고 유연한 동작 등으로 특히 마담 뽁빠두르와 마리 앙
투아네뜨는 이러한 우아함의 전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 위한 노력은 정교한 장식, 리본, 깃털장식 및 헤어스타일등 인공적인
치장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30).

로코코 시대의 파우더 사용은 살롱에서의 에티켓으로 파우더를 뿌리는
것은 상류계층에만 허용되는 특권이었다. 18세기 복식은 세련된 기교의 많

111) 고현진,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복식, 제54권 6호 2004, p.44.

은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여성적 곡선의 우아함, 섬세하고 정교한 장식과 디테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세련된 기교의 예술작품 같았다. 상류귀족들은 많은 시종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사치스럽고 비실용적인 복식을 통해 귀족적 품위를 드러냈다. 이렇듯 당시 화려하고 사치스런 것이 세련된 품위로 여겨지던 시대적 조류는 고운 색상의 태피터 양산과 부채, 뷰티점, 화장함 등의 액세서리를 유행시켰다.

리베이로(Ribeiro)는 “18세기 의상은 인공적 기교를 갖는 도회적 의상이다.” 라고 했듯이¹¹²⁾ 살롱의 복식은 도회적이고 인공적 세련미를 바탕으로 여성스럽고 호화로운 사치스런 복식이다. 이러한 복식의 장식은 미묘하게 조절된 섬세한 색상과 소재를 통해서 표현된다. 모든 색은 부드럽고 바랜 듯이 미묘하게 개발된 색상 톤들은 우아한 색채 조화를 통해 하나로 융화되었다. 로브의 소재로 자주 사용된 새틴, 브로케이드, 벨벳 등은 비실용적인 고급소재들로서 귀족적 품위를 지닌 유동적이고 미묘한 음영 효과를 통해 공간과의 융화를 주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감성을 전달하는 것들이었다.¹¹³⁾ 또한 18세기 복식에는 표면의 호화스러움이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는 관념이 팽배하던 시기로 장식적 소재 위에 화려한 표면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금사, 은사, 레이스 인셋(inset)등을 사용한 자수가 성행하였는데 고급스런 취향을 채워주기 위해 자수 사이에 스팅글, 포일, 유리등을 넣어 조명아래서 풍부함과 반짝거림을 주어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31).

세련성, 조화성을 바탕으로 한 여성성과 더불어 지위상징의 화려한 사치의 매력을 한껏 향유한 사치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을 당시 복식은 사회적 지위의 가시적 상징으로 정교할수록 착용자의 지위가 높았다. 그들은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 의상을 어떻게 멋지게 입을 수 있느냐가 더

112) Ribeiro. A, *Dress in 18th century Europe 1715~1789*(London: B.T. Batsford Ltd, 1984), p.13.

113) Ibid., p.44.

중요했으며 이것은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간만이 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의상을 실제로 입는 것보다 의상의 예술성에 가치를 두었고 이것이 개인의 문화적도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¹¹⁴⁾

살롱을 중심으로 전개된 로코코 복식은 그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기교적인 장식과 인공적인 헤어스타일 등으로 치장하였고 브로케이드, 벨벳, 새틴 등의 풍부한 광택의 섬세한 고급소재는 바랜 듯한 미묘한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온화한 감성을 전달하며 소재위에 정교한 자수나 스팽글, 포일, 유리등 장식을 첨가하여 조명 아래서 더욱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3) 에로티시즘(Eroticism)

제임스 레이버(James Laver)는 고딕시대를 패션의 기원으로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최초로 복장에서 유혹의 원리(seduction principle)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옷은 성적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¹¹⁵⁾ 몇몇 학자들은 의복의 구별은 일차적으로 성적 특성을 더욱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코르셋은 허리를 가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과 엉덩이 사이즈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호흡작용을 위쪽으로 옮겨 가슴이 더욱 돌출되어 보이도록 한다.¹¹⁶⁾ 특히 성적으로 매력적 이어야 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로 생각되어왔고, 이것은 여성들이 입는 옷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녀왔다.¹¹⁷⁾

18세기가 되면서 인간내면의 감정 욕구가 눈을 뜨고 쾌락적인 생의 욕구

114) 정홍숙, op.cit., p.239.

115) 마릴린혼, 루이스구렐, 이화연, 민동원, 존미영 옮김, 의복: 제2의 피부(서울: 까치, 1995), p.96.

116) Ibid., p.213.에서 재인용 Ernest Crawley, *Dress, Drinks, and Drums*, T. Besterman 편, (London: Methuen and Co.,1931), p.129.

117) 엘리자베스 루즈, 이재한 옮김, 코르셋에서 핑크까지(서울: 시지락, 2003), p.29.

가 모든 생활 영역에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적이라는 것과 병행하여 생활은 자유로워지고 도덕은 퇴폐적으로 흘렀다. 루이 14세 이후에는 정부를 두는 그늘진 행위가 표면화되었고 자랑으로까지 여기게 되어 파리 상류사회에서 유행하였다. 여자들은 국왕의 정부가 되는 것을 지상의 동경으로 알게 되어 요염한 화장과 유혹적인 의상으로 국왕과 귀족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다.¹¹⁸⁾ 이렇듯 귀부인들은 사랑의 우아한 하룻밤을 위해 세심한 치장과 준비로 하루를 보냈다. “1789년 이전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달콤한 맛을 알지 못한다.” 라는 딸레랑-빠리고르(C.Talleyrand-Perigord) 말을 통해 그 당시의 쾌락주의적 향락 생활을 짐작 할 수 있다.¹¹⁹⁾

향락적 분위기 속에서 발달하게 된 로코코 복식은 여성 육체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변하여 당시의 네크라인은 유두가 보일 정도로 가슴이 깊게 파인 U나 I 형태로 어깨를 많이 드러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¹²⁰⁾ 이러한 것은 에로틱한 요소가 강하게 풍기며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슴을 강조하는 것은 섹시한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의미한다. 코르셋으로 조이고 데플테로 노출한 앞가슴은 충혈되고 혈관이 과량고 투명하게 보임으로 당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는데¹²¹⁾ 딱 조인 코르셋으로 인해 피가 안 통하여 피부가 상하고 기절하거나 심장마비 등의 폐해가 뒤따랐다. 18세기에는 여성들 사이에 일종의 은밀함의 기호로서 코르셋이 존재하여 의복과 인체사이의 역할과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로 계획된 몸’을 강조한 묘사적인 기교에 반영되어 코르셋은 도덕적이고 에로틱한 충동을 동시에 강조하였다.¹²²⁾

1770년대 프랑스 인쇄물에 의하면 이 시대의 네크라인은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많이 과였다고 기록되어있다. 1780년대의 면 드레스는 허리 부분에

118) 정홍숙, op.cit., p.235.

119) 아르놀트 하우스, 염무웅,반성완역, op.cit., p.52.

120) 정홍숙, op.cit., p.244.

121) 채금석, 千村典生, 김미숙, 세계 패션의 흐름(서울: 지구문화사, 2003), p.59.

122) 채금석, 현대복식미학:표현주의에근거한양면가치를중심으로(서울: 경춘사, 2002), pp.364~365.

가능한 한 최고로 촘촘히 주름을 잡아 정교함을 보이며 치마 부분의 풍성함을 뒷 중심을 균형으로 한 일정한 외주름으로 표현하여¹²³⁾ 여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냈고 코르셋에 의한 가는 허리에다 빠니에로 확대시킨 스커트로 인해 풍만해진 하체부분이 성적 매력이 되었다(그림 32). 옆으로 더욱 확대되는 스커트에 대해 “--기이한 일로 남자는 우리 여성들의 불룩한 엉덩이가 근사하게 장식되거나 우리들의 하반신이 보행 시에 혹은 무도 시에 요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눈을 번쩍거리며 우리들을 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반신을 더욱 부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다.¹²⁴⁾ 화려한 레이스 장식을 한 슈미즈의 네크라인과 소매 끝 등이 로브 밑으로 살짝 보이며 더욱 매혹적이게 하였다. 그리고 로브 아래 씨르까시엔느는 옷 길이가 짧아져 발목이 보이는 것으로 중세 이래 드러난 적이 없었던 여자다리의 일부가 스커트 밖으로 드러난 것¹²⁵⁾ 이어서 육감적인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그림 33).

인간 감정과 쾌락적 욕구가 표출되면서 로코코 복식은 깊게 파인 U와 L 형태의 네크라인, 코르셋으로 극도로 조여 준 허리, 데폴데로 노출된 가슴과 잘게 잡은 플리츠로 구성된 스커트는 X실루엣을 형성하며 관능적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로브 아래 씨르까시엔느의 스커트 밖으로 드러난 발목은 육감적 시선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4)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통적 기존체계를 거부하고 형태와 장식물의 소재에서 엿보이는 변덕성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영구한 규칙이었다. 이때 패션이 탄생한 것이다.¹²⁶⁾ 패션의 변덕은 그 연대기록자들의 눈으로 보면 자명한 것으로 불안정하고 기이한 외관은 문제 삼기의 표적, 놀람과 매혹의 대상이 되었고,

123) 최은경, op.cit., pp.23~24.

124) 조규화, op.cit., p.322.

125) 신상옥, op.cit., p.234.

126) Gilles Lipovestsky, 이득재역, op.cit., p.25.

도덕적인 저주의 표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¹²⁷⁾ 패션은 풍부하게 단 가 장자리 장식, 과도하고, 호사스러우며, ‘어리석은’ 형태들을 가지고 외양 전반을 극장성, 유희, 그리고 매혹적인 스펙터클의 질서 속으로 이동시킨다. 패션 체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발전시키거나, 형식적이고 사치스러운 허식이 지나친 것들을 앞 다투어 내놓으려고 했다. 미적인 효과들은 언제나 새로움과 허식에 대한 확고한 열정에 인접해 있는 변덕의 영역이다.

1780년경에 나타난 단순함의 유행은 초기에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게 다듬은 것에 못지않게 연극적이고 인공적이며 유희적인 것이었다.¹²⁸⁾ 스커트를 퍼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빠니에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전래되어 파리의 툴리리(Tuileries)궁전에 보급되어 1719년 파리 극장에서 선을 보였다. 그것이 무대 극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을 모두들 웃었다고 하나 참신한 이 모양은 의외로 깊은 인상을 주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반에 널리 퍼졌다. 빠니에의 크기는 해가 갈수록 커져서 1740년경부터는 앞, 뒤가 얇고 좌우 양옆이 높게 올라가는 타원형이 되었고, 1750년경에는 초대형의 타원형 빠니에 두블(panier double)이 유행하였다. 이는 양옆에 머뎀대를 두개씩 만들어 더욱 부풀릴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귀부인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확대 되어 출입구를 지날 때는 옆으로 향하거나 남자는 한발 앞이나 뒤에서 걸어야 하는 불편을 주었다. 이런 빠니에는 1775년경까지 전성을 이루며 풍자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지식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었다.

1780년경이 되면서 빠니에는 점차 축소되며 부풀림이 뒤로만 집중 되는 새로운 형태의 꾸 드 크랭(cul de crin)으로 로브의 새 실루엣을 결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당시의 복식 규범을 깨는 이런 파격적인 도입으로 실루엣의 변화를 주었다.

127) Ibid., p.36.

128) Ibid., pp.42~44.

1780년대 상류부인들 사이에서 유행된 로브 아 라 까라끄는 남자 코트와 같은 것이 도입된 것으로 여성복의 일대 혁신이며 편리한 투피스 형태로의 발전을 볼 수 있다. 1783년 엘리자베스 비지 레브룬(Elizabeth Vigee-Lebrun)에 의해 그려진 마리 앙투아네트의 새로운 의상은 지금까지 겹옷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왔던 속옷을 여왕이 스스로 겹옷으로 착용하여 궁정의상의 가장 엄격한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한 의상이었다¹²⁹⁾(그림 34).

18세기 중엽까지의 풍과두르의형의 낮은 머리형은 조화, 깃털, 구슬, 진주 보석 등으로 장식하여 얼굴을 축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스커트가 넓게 퍼져 피라미드 형태가 되었다. 1760년경부터 화려한 머리형태는 점차 커지기 시작하여 17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고 빠니에의 확장과 함께 머리 형태도 양 옆을 평행으로 이루어 장식의 특징을 강조시켰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까지 많은 관심을 나타내어 헤어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미용사가 발표하는 뉴 모드는 파리에서 유럽까지 전파되었고 머리모양의 높이는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 극치에 달해 사상최대의 건축적 머리형이 유행하였다. 이는 허풍이라는 의미의 푸프(pouf) 스타일로 방석을 이용해 머리채를 장식할 정도로 매우 독창적이었다. 고개의 요구에 의해 남녀 미용사들의 끊임없는 상상에 의한 창작된 머리형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였고 그 주제에 맞는 장식을 하기 위해 이전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배의 모형이나 과일, 야채, 박제된 새 등 온갖 재료가 동원되었다¹³⁰⁾(그림 35). 18세기의 눈은 ‘신체 중간’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징적이고 사치스러운 여성의 머리치장과 복식으로 패션의 추종자가 아닌 항상 패션의 선두에서 유럽의 패션을 이끌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유희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로 인하여 스커트는 빠

129) 채금석, op.cit., pp.357~358.

130) 정현진 외5인 공저, 미용문화사(서울: 광문각, 2003), pp.104~106.

니에 두블로와 같이 극도의 수평라인을 형성하였고, 복식뿐 아니라 헤어 치장에 관심을 가지며 이전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과일, 야채, 박제 등 온갖 재료를 사용한 사상 최대의 건축적 머리 형태로 최대의 수직라인을 형성하며 전통의 틀에서 탈피해 패션의 선두자리에 섰다, 남자코트의 형식을 도입한 로브 아라 까라코와 여왕 스스로 시스루 한 소재의 속옷을 겉옷으로 착용해 아방가르드 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로코코 복식의 감성을 분류해 보았는데 로코코 복식의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로코코 예술의 이상이 디테일의 화려함과 더불어 표현되면서 여성적 섬세함, 귀족적인 우아함으로 로맨틱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모드를 형성하였고, 후반부가 되면서 쾌락적 유희에 의한 은유적인 관능과 자유로움에서 오는 디테일의 과도한 장식의 부조화, 관능적이면서도 아방가르드한 로코코 복식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로코코 여성복식에 나타난 디테일에 따른 감성 이미지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요소에 따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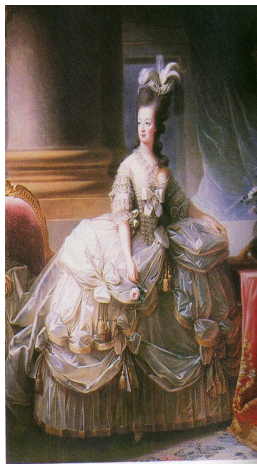
<그림 29> 앙투아네뜨
www.marguise.de
2005.10.12



<그림 30> 뽕빠두르
www.marguise.de
2005.10.12



<그림 31> 뽕빠두르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297



<그림 32> 앙투아네뜨
www.marguise.de
2005.10.10



<그림 33> 로브 아
라 시르까시엔느
서양복식문화사,
p.247



<그림 34> 로브 아 라
슈미즈
서양복식문화사, p.249



<그림 35> 건축적
머리
서양복식문화사,
p.268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코코적 이미지

문화 양식들은 다음세대로 유전, 변형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해 의복이라는 내적 미적 가치를 포출하며, 의상에서의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의복이라는 조형요소로의 구현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¹³¹⁾

현대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복고는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등장하고 과거적 요소는 단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여 과거적 요소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¹³²⁾ 즉, 과거에 흥미했던 실루엣이나 아이템 요소 등이 현대적 소재,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나타 나기도한다

패션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날 수 는 있으나 어떤 한 시대의 패션이 완전히 그대로 재현되기 보다는 그 당시의 취향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해석되어진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요소에 현대성의 혼합에 의한 칵테일 효과(coctail effect)를 보여준다.¹³³⁾

미래 패션의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나 개성은 더욱 다양화 되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복합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크로스 오버 현상이 주종을 이룬다. 정보의 보편화,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기능, 간성, 기술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하고 변형하고 개선하

131)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Ⅱ):반 미학과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제 38호, p.376.

132)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35.

133) 채금석, op.cit., p.218.

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패션 평론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뉴 밀레니엄 패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뉴 밀레니엄 패션에서는 더욱 다원화된 형태로 발전하여 유행이란 획일성 보다는 일치에 중점을 두어 인종, 성, 자아, 등의 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현되는 혼합주의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낭만적이며 신비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주제가 되는 패션이 나타나고 역사적 회고와 패스티쉬(pastiche) 경향은 이러한 패션에 대한 관용과 함께 지속될 것이다. 과학의 진보로 인한 새로운 소재와 제조 기술의 개발은 새로운 패션 출현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에도 반 미학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며¹³⁴⁾ 비록 수용되지는 않을 지라도 새로운 시도와 창조는 계속되어 새로운 미학 및 가치 체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로코코 복식이 현대 패션에 재등장하는 것은 과거의 재현이며, 이는 현대 패션을 다양하게 하여주는 요소이다. 이렇듯 현대 패션에서 로코코 시대의 복식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감성적 측면에서 로맨틱 환타지, 살롱 엘레강스, 에로티시즘, 아방가르드 이미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4) Roberta Wolf .Trudy Schlachter, Millennium mode: Fashion forecasts from 40 top designers.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9 이봉덕, 21 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p.47~48에서 재인용.

1. 로맨틱 환타지

의복의 가장 큰 효용성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감탄을 얻는 수단으로서 그들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¹³⁵⁾

20세기의 모더니즘은 장식을 거부한 단순함으로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였으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감성은 모더니즘이 주는 차갑고, 냉정한 획일화된 표현에서 벗어나 다시금 장식에 몰입 매료되었다.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는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장식과 치장을 이야기 하였는데 장식의 발달은 여성미를 더욱 강조시키면서 꿈과 환상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의 로맨틱시즘적 장식성은 환상적 색과 조직을 가진 다양한 재질과 역사주의적 복식을 모방한 디테일 및 트리밍의 기법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 복식은 소재를 통해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하여 다채로운 색채와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많은 소재들을 그 자체만으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기에 충분하다

실의 얽힘이나 조합에 의해 은은히 비쳐 보이는 반투명소재인 레이스는 과거에는 그 사용범위가 언더웨어나 복식의 부분 디테일에 한정 되었으나 오늘날은 복식의 주소재로 사용되면서 낭만성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된다.¹³⁶⁾

또한 디테일과 트리밍에 대한 장식성도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 복식에서 장식성은 과거에서 차용된 장식적인 기법과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결합되어 19세기 복식과는 또 다른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크리스티안 디오르(Christian Dior)는 <그림 36>에서 흰색의 노방으로

135)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정현숙역, 복식의 심리학:패션과 그 동기에 대한 분석(서울: 경춘사, 1990), pp.26~27.

136) 이경인, 로맨틱시즘 복식의 양식(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73.

된 드레스에 머리에는 십자가를 장식하여 마치 성모상을 연상 시키고 있다. 흰색 드레스는 흰색 루프로 곡선과 꽃문양을 그리며 장식되어있고 가슴에는 루프가 장식된 커다란 리본으로 조화를 이루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등 뒤에서 장식된 트레인은 끈으로 연결하여 마치 천사의 날개를 상상하게 하며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37>는 크리스찬 라크루아(Christiznacroix)의 작품으로 높은 명도의 노랑 드레스는 블루, 블랙의 투톤으로 된 쉬폰 소재와 색의 대비를 이루며 생동감 있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허리는 주름장식으로 풍성하게하고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리본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변화를 주며 점점 크게 장식되어 화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언더커버(Under cover)의 작품으로, <그림 38>는 레이스와 프릴, 레이스 장식이 된 브레이드, 진주 줄 장식 등이 어우러진 원피스의 상의와 이중으로 직조된 듯한 입체감 있는 스커트는 허리의 커다란 리본과 함께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리본 아래로 마치 마론 인형의 머리카락과 같은 프린징 장식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여기에 다양한 색상의 꽃이 장식된 장갑과 머리위에 장식된 퍼퓸 플라워(perfume flower)도 로맨틱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39>에서 소니아 리키엘 (Sonia Rykiel)은 니트의 대모담계 로코코의 장식요소인 꽃과 줄기, 플라운스를 니트로 연출하였다. 브라운 색상의 이 코트는 여러 겹의 플라운스를 층층이 겹침으로 니트 재질 특유의 입체감으로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니트로 짜여진 꽃 모티브들은 줄기와 줄기로 연결하여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장식되었고 블랙이 매치된 머플러는 화려하면서도 쉬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대 복식에 표현된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는 로코코 복식에 표현된 프릴과 리본, 꽃 장식 등 다양한 디테일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파스텔 톤의 꽃문양의 로코코적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는 현대에서는 레이스, 니트 등 소재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슬

리드 한 소재를 칼라 코디네이션(color coordination)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2. 살롱 엘레강스

20세기 초에 이르러 여성복은 절제된 엘레강스 스타일의 현대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모더니즘 엘레강스에 있어 중요시된 부분은 의상 뿐 아니라 적절하게 갖춘 액세서리와 조합, 단정한 매무새 등을 통한 전반적 옷차림에 있어 인체와의 조화이다.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을 지위 상징의 복식으로 자리매김하여 단순하면서도 탁월한 완성도를 갖는 디자인으로서 영속적인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

장식코드의 엘레강스는 오프꾸뛰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엘레강스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아한 품위를 존중하며 상류계층의 상징으로 대부분의 파리 오프꾸뛰르 등이 표방하는 이미지로, 장식코드인 꾸뛰르의 엘레강스는 정교한 기교, 뛰어난 품질, 완벽한 수공예, 상류계층적인 사치스런 우아함을 갖는 장식주의, 엘리트주의의 엘레강스를 뜻하는 것이다. 성공한 디자이너들은 취향과 사교 에티켓의 중재자가 되어 전 세계의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을 판다. 이러한 꾸뛰르 디자이너 부티크의 인테리어는 상류 문화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패션은 다원성 속의 미니멀리즘의 시기로 이는 순수주의 디자인의 연장선으로서 전체적 구성 체계를 극도로 단순화 시키는 세련화의 극치인 순수 추상주의로 세련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니멀리즘적 엘레강스에 있어서의 특징은 장식의 절제를 통한 세련되고 순수하고 단순한 구조 속에 은근하고 미묘하게 장식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부드러운 여성적인 실루엣, 미묘하게 세련된 색상, 정교하고 미묘한 디테일, 미니멀리즘 속의 낭만적인 감성 등으로 표현된다.¹³⁷⁾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핑크 등 거리의 하위문화 스타일 또한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키치(kitsch)의 저급문화 요소 기법을 도입하여 세련과 조화의 미학을 이루는 키치 엘레강스 스타일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샤넬의 작품인 <그림 40>는 로코코의 주요 장식인 꽃을 전면에 장식하여 마치 꽃으로 만든 성이 움직이는 듯한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꽃봉오리 들은 아래로 가면서 만개하듯 커다란 꽃송이를 이루며 화려함을 더한다. ‘패션은 지나가도 스타일은 남는다’는 샤넬의 말처럼 그에게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과거를 한 자리에 놓고 샤넬만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1>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가 오프뛰뛰르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우아함과 장식성을 볼 수 있다. 아르마니는 몸을 타고 흐르는 단순한 선의 울동 안으로 모든 패션의 미덕을 축적시키려는 듯 심플한 형태를 다양한 질감과 풍부한 조형으로 환기시키려는 감각을 볼 수 있다.¹³⁷⁾ 로코코의 꽃 장식을 포인트로 새틴으로 된 솔칼라의 선을 타고 가슴 부위에서 장미꽃을 만들며 우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멋을 자아내고 있다. 꽃은 밑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져 도련의 유연한 곡선으로 연결되고 새틴과 어우러진 하운드 투스(Hound's tooth)의 실크울은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며 드레이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은빛의 모피는 더욱 럭셔리하고 우아한 멋을 풍긴다.

<그림 42>은 Gucci의 원피스로 새틴과 쉬폰을 이용해 로코코적인 요소를 해석하고 있다. 가슴을 감싸듯 가볍게 꼬은 선을 따라 작고 잔잔한 플라운스가 나선형으로 몸을 휘감으며 아래까지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로코코 양식의 곡선을 이룬다. 가슴 선을 따라 소매로 이어지는 부드럽고 가벼운 쉬폰의 셔링은 화려하고 풍성한 로코코의 장식을 쉬크하면서 엘레강스한

137) 고희진, op.cit, p.168.

138) 최경원, 김세나, 유제부, *World fashion designer story*(서울: 패션인사이트, 2003), p.89.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대 복식의 살롱 엘레강스 이미지도 로코코 복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플라운스, 비즈, 꽃 등의 디테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로코코 시대는 수공예적 기교를 필요로 하는 장식으로 화려하게 연출되었다면 현대는 슬림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형성하며 다소 절제된 듯한 디테일로 소프트 미니멀한 엘레강스한 멋을 풍기고 있다.

3. 에로티시즘

여성 속에는 수동적인 노출증의 경향이 숨겨져 있어서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출된다. 여성은 바라보아지고자 하는 수동적인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패션은 여성 신체 부위 중 특정 부분의 선택적인 노출, 은폐, 강조를 통하여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유혹의 원칙에 의해 조절된다.¹³⁹⁾

패션은 항상 유혹적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의복은 타인, 특히 이성의 주위를 끌기 시도하며, 의복의 에로티시즘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내세우려 한다는 점이다. 패션이 의식적으로 내세우려는 이미지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미지이다.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정신적 추구’ 로써 타인을 향한 자신의 내비침, 내보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표현 행위가 갖는 특징이다. 이것은 성적 태도로 요약되는데 성에 대한 갈망, 열정, 성에 대한 친화력, 성애적 표현 등이 본질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인간의 자율적인 전개행위를 통하여 내재적 완성에 도달하려는 예술 활동으로 복식에 반영되어 표현되어왔다.¹⁴⁰⁾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섹시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139) 채금석, op.cit., pp.345~347.

140) 조영란,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8.

왔다. 노출은 복식 밖으로 대담하게 신체의 부위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슬래쉬, 슬릿, 구멍뚫기, 컷 아웃 등의 기법을 통하여 나타낸다, 밀착은 복식을 신체에 밀착시킴으로서 굴곡을 표현하여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투시란 비치는 소재에 사용하여 신체 부위를 감쌌으므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닌 연상의 심리에 의해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속옷의 겉옷화란 속옷의 디자인이 소재, 장식기법, 이미지 등의 요소가 겉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다양한 소재의 매치와 속옷의 겉옷화, 위치 전환, 상징물 부착 등 직접, 간접의 사실적 표현 유형을 상징적 표현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⁴¹⁾

게리에로(Guerriero)가 디자인한 <그림 43>은 로코코의 관능적인 요소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마치 프릴 달린 인형의 언더웨어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주고 프릴과 꽃이 장식된 몸에 밀착되는 라인은 에로틱한 느낌을 주며 골반에서 형성된 빠니에를 단 듯한 풍성한 페프럼은 드러낸 몸매를 더욱 강조하여 밀착된 몸매를 자랑스럽게 자신감을 보이며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발렌티노(Valentino)의 <그림 44>는 간접적 투시에 의한 섹시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흰색의 부스티에 아래로 연결된 스커트는 블랙의 시스루 소재 위에 흰색 러플로 장식되어있는데 현란한 곡선을 이루는 러플 장식은 해바라기를 스커트에 뿌려놓은 듯 하며 러플사이로 살짝 살짝 보이는 블랙의 시스루 소재는 에로틱한 섹시함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5>은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ana)의 06 S/S의 작품으로 레이스, 새틴, 노방, 망사를 레이어드하여 만든 드레스로 온통 꽃으로 장식된 상의는 새틴벨트로 허리를 조여 주고, 블랙 레이스의 헴라인 밖으로 돌출되듯 풍성하게 장식된 붉은색의 망사 레이스는 도발적인 섹시함을 과시하며 블랙과 레드와 강렬한 색상 대비와 그 사이로 드러나는 다리는 로맨틱

141) 홍순미,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p.68.

하면서도 관능적인 섹시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에서 크리스찬 디오르는 관능적이면서도 섹시한 코르셋 드레스를 그녀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허리를 가늘게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의 가슴 부분에 과장된 프릴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커트는 자수로 장식된 천을 힙에서 감싸주고 스커트 밑자락을 끌어 올려 힙의 볼륨을 주어 관능미를 발산하고 있으며 힙을 감싸고 있는 천을 펼쳐주면 이불이 펼쳐질 듯한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네크라인의 노출 및 코르셋의 밀착으로 표현된 로코코 복식의 에로틱한 이미지는 현대 복식에서도 부스티어로 허리를 조이고 강조함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란제리 스타일이나 블랙과 레드의 색상 대비 등으로 더욱 강렬하게 어필하고 있으며 밀착 및 투시, 트임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연출되고 있다.

4.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운동을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 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 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로 규명하고 있다.¹⁴²⁾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아방가르드가 주장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은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¹⁴³⁾ 아방가르드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열린 미학으로서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해 가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¹⁴⁴⁾ 아방가르드 패션은 아름다움보다는 독특함, 규범에 대한 저항

142) 월간 미술편, 세계미술용어 사전(서울: 중앙일보사, 1989), p.341.

143) 진휘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서울: 민음사, 2002), p.15.

144) 이봉덕, op.cit., p.18.

등 새로운 디자인 원리 및 지식체계의 전개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과장된 실루엣이나 언밸런스한 커팅, 중성적 이미지를 표출 하며 첨단과학 기법을 응용한 디테일이나 인공적인 테크노 소재 또는 단위결합의 형태로 연출하고 있다

빅터 앤 로프(Victor & Rolf)의 작품인 <그림 47>는 켈트 되어진 원피스는 마치 이불을 연상시키고 자수 장식과 리본 형태의 과발라 장식된 큐션은 베개를 연상시키며 지난 밤 늦게 까지 정부인 페르젠과 사랑을 나누다 정오가 다 돼서야 일어난 앙뚜아네뜨의 침실 의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현대적 의상이다¹⁴⁵⁾

크리스찬 디오르가 디자인한 <그림 48>는 확대된 칼라와 스커트의 헴 라인에 주름을 잡은 플라운스의 풍성함이 X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극도로 확대된 칼라는 중간에 절개를 주어 셔링으로 처리하고 비즈, 스팅클로 장식하여 변형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쉬폰의 부드러운 소재를 여러 겹 그라데이션을 주고 플라운스 잡은 스커트의 헴라인은 로코코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부조화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9>에서 빅터 앤 로프는 “플라워 범브(Flower Bomb)”란 주제로 로코코의 장식 중 하나인 리본을 가지고 풀어나갔다. 색상과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리본을 감싸고 회전시키면서 환상적인 색의 조화와 조형미를 창조해 내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리본은 커다란 네크라인을 이루며 핑크와 노랑의 환상적인 색상을 연출하고 언밸런스한 라인을 형성하며 비대칭의미를 보이고 있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또한 플라운스, 리본, 켈트 등 로코코적인 디테일을 중심으로 극도의 확대 및 은유로 전통의 과격성을 볼 수 있으며 소재 및 색상의 대비, 언밸런스한 라인 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복식에 나타난 로맨틱 환타지, 살롱 엘

145) 보그(vogue) (2005, April, 23), p.65.

레강스, 에로티시즘,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표현된 디테일은 리본, 꽃 플라
운스, 러플 등 로코코 복식에서 나타난 디테일들이 현대의 감성에 맞게 레
이스, 니트, 망사, 시스루 등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조화로 재창조되어
표현되었다.



<그림 36> 크리스찬 디오르
05/06 F/W
Mode et Mode No.32 p.31



<그림 37> 라크루아
05/06 F/W
Mode et Mode
No.32, p.86



<그림 38>
언더커버 05 S/S
Gap press Vol.61,
p.80



<그림 39>
소니아리키엘 05/06
F/W
Gap press Vol.63,
p.113



<그림 40> 샤넬 05/06
F/W
Mode et Mode No.32,
p.53



<그림 41> 아르마니
05/06 F/W
Mode et Mode No.32,
p.90



<그림 42> 구찌 05/06
F/W
Gap press Vol.63,
p.29



<그림 43> 케리엘로
04/05 F/W
Collection Vol.6,
p.374



<그림 44> 발렌티노
05/06 F/W
Mode et Mode No.32,
p.110



<그림 45> 디오르 06 S/S
Gap press Vol.66, p.25



<그림 46> Dior 04/05 F/W
Gap press Vol.12, p.31



<그림 47> 빅터 앤
로프 05/06 F/W
Gap press Vol.64, p.41















<그림 48> 크리스찬 디오르
04/05 F/W
Gap press Vol.12, p.27



<그림 49> 빅터 앤 로프
05 S/S
Gap press Vol.61, p.21

<표 5> 현대복식에 표현된 로코코적 이미지의 표현방법

특징 감성 이미지	현대복식			특징
로맨틱 환타지				레이스, 니트, 노방등 질감이 다른 다양한 소재의 결합과 색상의 대비로 표현
살롱 엘레강스				실크 울, 새틴등 부드러운 고급소재와 상징적디테일로 표현
에로티시즘				블랙과 레드의 색상대비, 망사, 시스루소재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
아방가르드				구조적 디테일의 형태를왜곡, 확대해서 표현하고 비대칭의 커팅, 색상의대비로 표현

IV. 작품 제작

1. 작품 의도 및 방법

21세기는 로맨틱 이미지가 패션 전반에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우며 장식성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식 예술에서 시작한 로코코 복식은 꽃, 러플, 리본, 레이스 등 다양한 디테일이 사용되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복식을 탄생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복식에 사용된 양가장, 리본, 레이스, 플리즈, 팔발라, 프릴, 러플, 플라운스, 셔링, 새쉬벨트, 비즈, 드로우스트링 등 디테일을 응용하고 때로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분류한 로코코 복식의 로맨틱, 엘레강스, 에로틱, 아방가르드한 감성이미지에 맞추어 현대 복식에 응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각 디테일들의 소재나 기법 개발에 활용되고자한다.

작품은 로코코 감성의 분류에 따라 로맨틱 이미지 3점, 엘레강스 이미지 3점, 에로티시즘 1점, 아방가르드 1점의 총 8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타겟은 예술적 감각과 열정을 소유한 20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유롭고 감성적인 인생을 위해 예술을 사랑하고 여행과 여유를 향유하는 모임을 즐기며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소유한 여성으로 하였다.

실루엣은 A라인의 슬림한 실루엣으로 고급스런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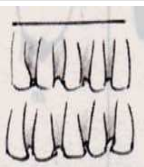


아이템은 재킷과 스커트 슈트, 재킷과 바지슈트, 원피스, 재킷과 원피스의 앙상블로 구성하였으며,

색상은 핑크, 그린, 옐로우 등 부드러운 색상과 그레이쉬하고 다소 폐일된 색상에 05/06 F/W의 트렌드 색상인 바이올렛을 사용하였다.

소재는 표면감이 있는 자카드, 부드러운 조젯과 쉬폰, 벨벳, 새틴, 홈스펀, 면 등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리본, 레이스, 앙가장뜨, 플리츠, 파발라, 프릴, 러플, 에셀, 플라운스, 셔링, 비즈, 드로우 스트링으로 장식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6> 작품계획도

감성	작품	아이템	디테일		색상	소재
로맨틱	작품1	재킷 스커트	앙가장뜨 리본	 	바이올렛	새틴 벨벳
	작품2	재킷 바지	플리즈 리본	 	페일핑크	자카드 니트
	작품3	원피스	파발라 러플	 	핑크	면
엘레 강스	작품4	재킷 바지	에셸 플라운스	 	핑크 그레이	홈스펜
	작품5	재킷 바지	새쉬벨트 비즈	 	그린	실크 벨벳
	작품6	재킷 원피스	셔링 플라운스	 	바이올렛	벨벳 실크
에로티 시즘	작품7	원피스	드로우 스트링		블랙 옐로우	레이스 새틴
아방 가르드	작품8	원피스	디테일 복합		아이보리	벨벳 자카드

2. 작품 및 해설

1) 작품 I

- ▷ 감성이미지: 로맨틱
- ▷ 아이템: 재킷, 스커트
- ▷ 색상: 바이올렛
- ▷ 소재: 실크, 벨벳, 레이스
- ▷ 디테일: 양가장뜨, 리본, 프릴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페일 핑크색 실크 소재에 레이스를 함께 사용하였고 바이올렛 색상의 벨벳을 매치시켜 고급스러운 멋을 주었다.

재킷은 앞 어깨에서 프린세스 라인을 따라 뒤쪽까지 곡선을 이루며 실크에 레이스 소재를 겹쳐서 여성적인 느낌을 주고 뒤판은 레이스를 언밸런스하게 커팅하여 변화를 주었다. 또한 프린세스 라인을 따라 레이스와 노방의 이중 프릴장식을 함으로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주었다. 소매는 두장 소매의 라인을 앞쪽으로 옮겨서 트임을 주고 트임 사이로 층층이 3겹의 레이스로 형성된 양가장이 보이고 트임 위쪽은 작은 리본으로 장식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더하였다 이 양가장은 탈, 부착을 가능하게 하여 분위기를 바꾸고자 할 때 응용할 수 있다.

스커트는 벨벳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햄 라인 아래로 보이는 레이스의 화려함이 상의와 매치되어 화려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주고자하였다.



<그림 50> 작품 I 디자인 스케치



<그림 51>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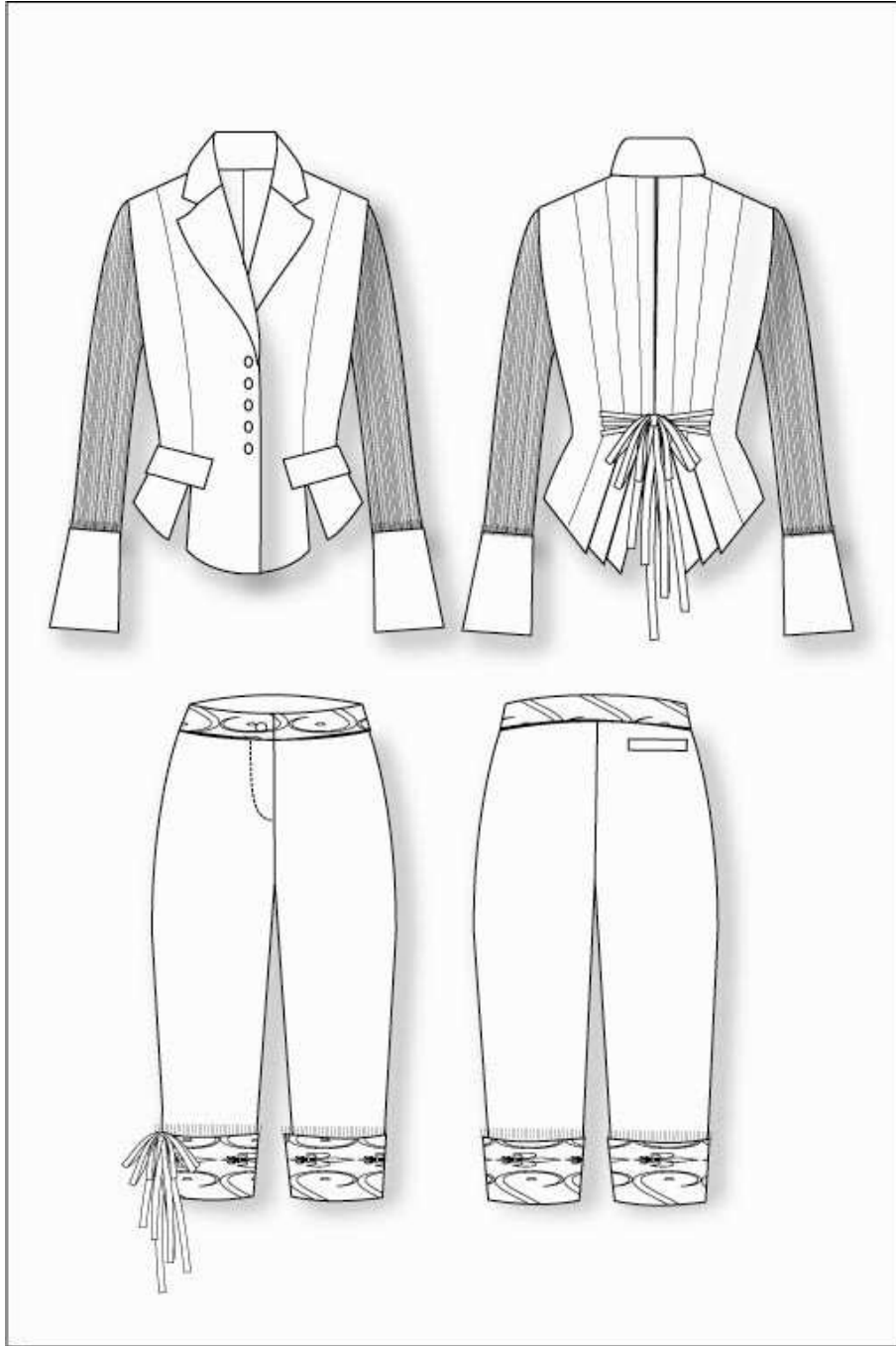
2) 작품 II

- ▷ 감성 이미지: 로맨틱
- ▷ 아이템: 재킷, 바지
- ▷ 색상: 페일 핑크
- ▷ 소재: 자카드, 니트
- ▷ 디테일: 플리츠, 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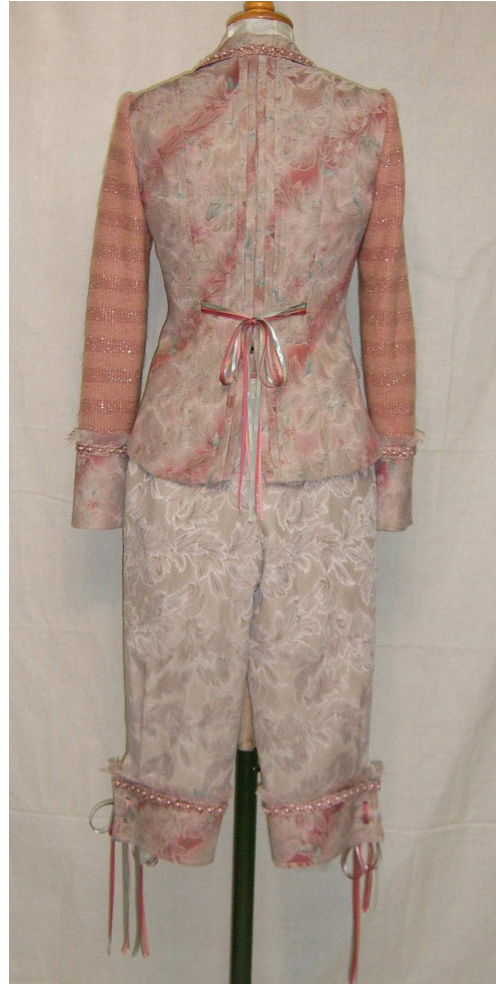
재킷과 바지로 구성된 이 작품은 페일 핑크의 자카드 소재에 페일 베이지로 된 바지를 매치 시켰다.

재킷은 앞. 뒤 햄 라인을 곡선을 이루도록 등글게 처리했고 뒤 중심에는 로코코 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리츠를 사용하여 허리를 타이트 하게 하였으며 뒤 중심과 앞의 프린세스 라인에 트임을 주어 활동성과 플리츠의 느낌을 더욱 살려주었다. 또한 자카드 소재에 페일 된 핑크의 색상은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주고 있으며 핑크는 사선을 형성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

바지는 무릎아래 길이로 커프스 끝은 올을 풀어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뒤 중심과 커프스는 단추를 사용하지 않고 페일 핑크, 자주, 그린 색상의 3겹 리본으로 장식하여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52> 작품 II 디자인 스케치



<그림 53> 작품 II

3) 작품 III

- ▷ 감성이미지: 로맨틱
- ▷ 아이템: 원피스
- ▷ 색상: 핑크
- ▷ 소재: 면
- ▷ 디테일: 파발라, 리플

전체적으로 10부 길이의 원피스로 핑크색상에 블루 톤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면 소재를 사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자 하였다.

플랫칼라와 앞 중심에 자수 장식이 된 브레이드로 포인트를 주었고 노방과 제 원단으로 프릴장식을 하며 귀여움을 주고자하였다. 허리는 셔링을 넣은 페프럼으로 허리를 강조하듯 보이게 하였고 스커트의 헴 라인을 따라 파발라 장식을 하여 풍성하고 화려하게 하였다. 7부 길이의 소매는 커프스를 따라 프릴장식을 하여 칼라의 프릴장식과 함께 귀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림 54> 작품 III 디자인스케치



<그림 55> 작품 III

4) 작품 IV

▷ 감성이미지: 엘레강스

▷ 아이템: 재킷, 바지

▷ 색상: 핑크, 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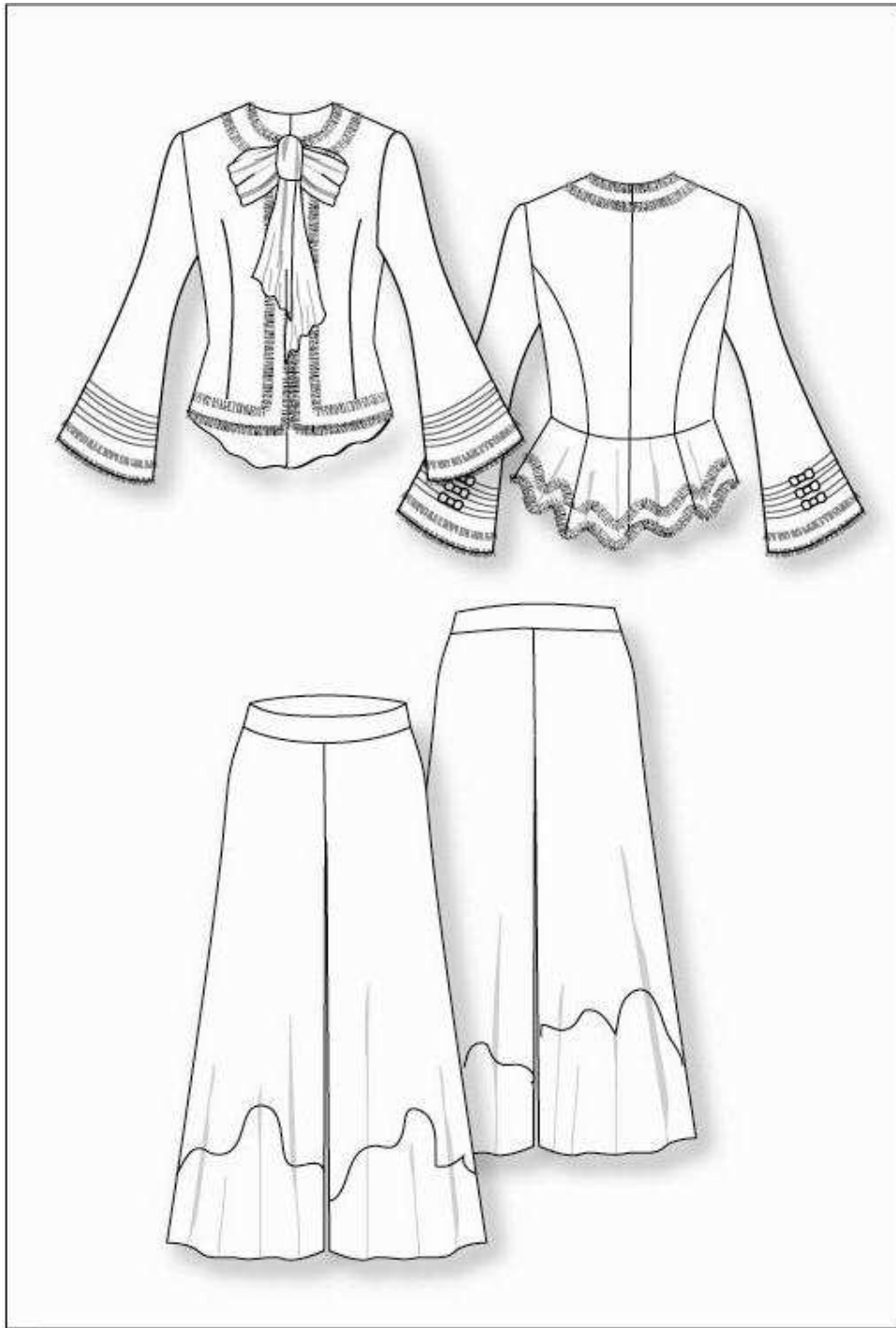
▷ 소재: 홈스펀

▷ 디테일: 에셸, 플라운스

이 작품은 핑크 톤의 홈스펀 재킷에 쉬폰과 와이드 팬츠를 매치시켜서 고급스런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재킷은 핑크색의 셔닐사에 그레이, 베이지색의 장식사가 믹스된 홈스펀으로 구성하였는데 소재 자체에서 주는 화려함을 살리기 위해 넥크라인과 햄 라인, 소매부리의 가장자리는 쉬폰을 바이어스 재단하여 잔잔하게 셔링을 주고 그 위에 테이프 형식으로 원단을 올려 가장자리는 올을 풀어 주었다. 또한 소매 아래쪽에는 벨벳 테이프를 이용해 3단으로 리본 장식을 하여 로코코의 에셸 장식을 응용하였다. 앞 중심은 단추 대신 여밈으로 쉬폰으로 된 커다란 리본을 달아 바지의 부드러운 느낌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하의는 상의의 이미지를 살려서 부드럽고 가벼운 조젯과 쉬폰을 사용하였으며 피치 색상의 조젯을 안쪽에 걸은 그레이 톤의 쉬폰으로 투톤의 느낌을 살려서 신비로우면서도 럭셔리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56> 작품 IV 디자인스케치



<그림 57> 작품 IV

5) 작품 V

▷ 감성이미지: 엘레강스

▷ 아이템: 재킷, 바지

▷ 색상: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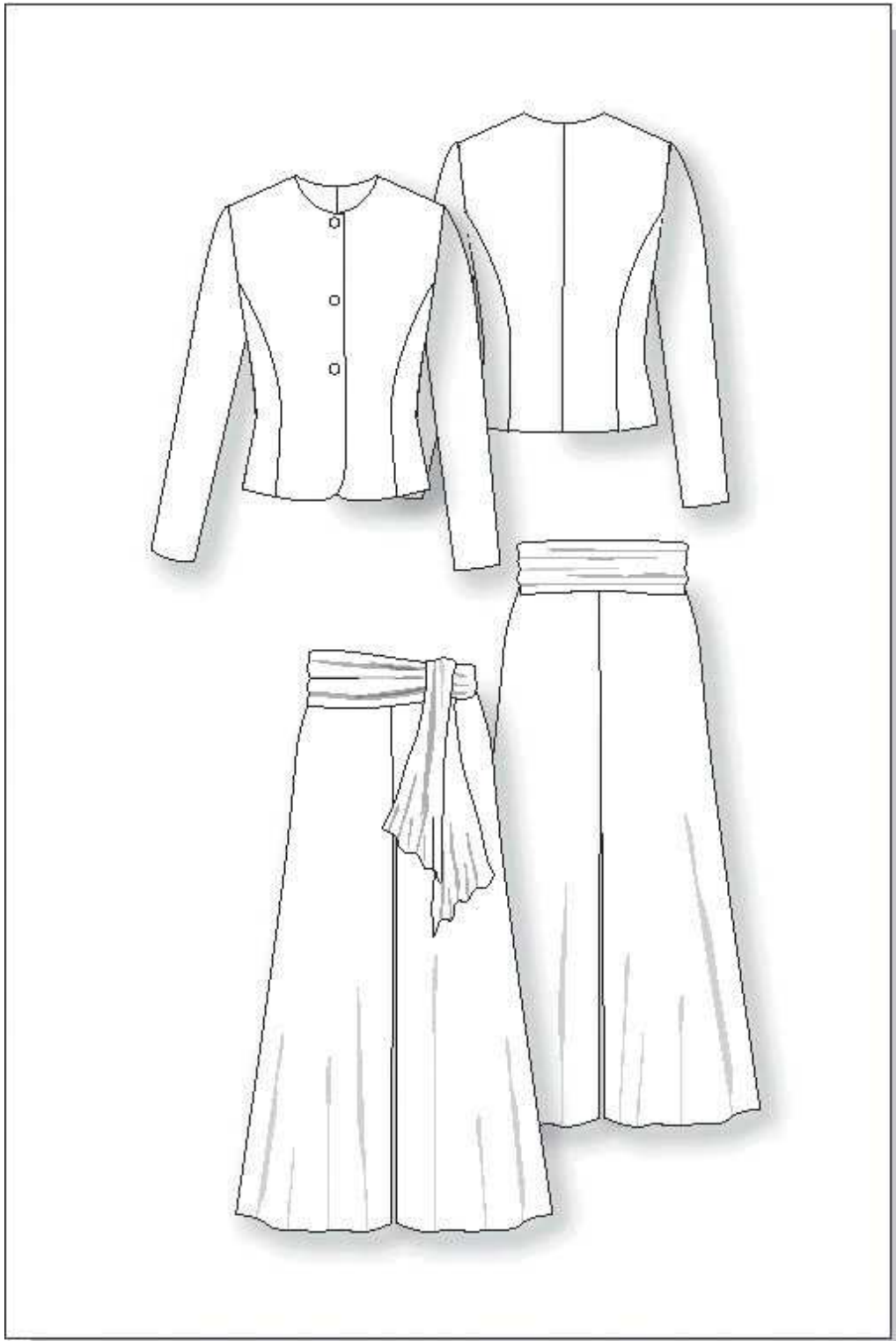
▷ 소재: 실크, 벨벳

▷ 디테일: 새쉬 벨트, 비딩

이 작품은 그린 톤의 재킷에 벨벳으로 된 와이드 팬츠를 매치시키고 벨트를 매어 포인트를 준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주었다.

재킷은 부정형의 꽃문양을 후염처리 한 실크 바닥에 문양을 따라 기모를 첨모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고 흰색과 페일 된 그린 톤의 배색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즈가 장식된 단추와 가슴위로 비즈장식을 함으로서 화려하고 심플한 라인에서 무게감을 다소 가볍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의인 바지도 페일 된 그린 색상의 벨벳으로 와이드하게 전개하여 상의의 기모직물의 분위기에 맞추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허리에는 로코코에서 새쉬 벨트를 모티브로 하여 쉬폰과 벨벳으로 이중 처리한 벨트를 묶어 주었는데 여기에는 비즈와 장식사를 이용해 화려함을 더 하면서 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머플러로도 활용하여 멋을 연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8> 작품 V 디자인 스케치



<그림 59> 작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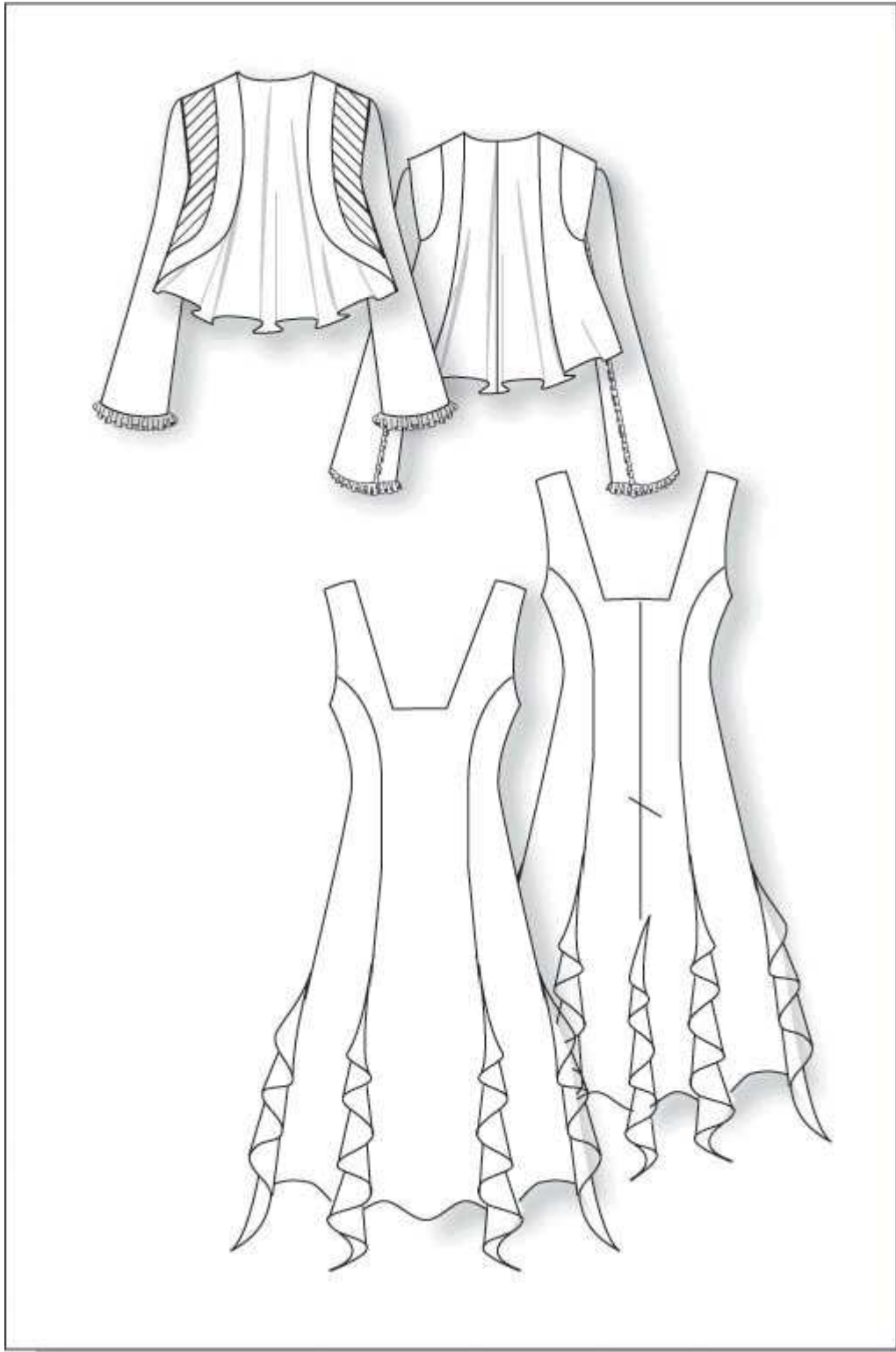
6) 작품 VI

- ▷ 감성이미지: 엘레강스
- ▷ 아이템: 재킷, 원피스
- ▷ 색상: 바이올렛
- ▷ 소재: 실크 벨벳
- ▷ 디테일: 플라운스, 셔링, 자바라

원피스와 짧은 볼레로가 매치된 이 앙상블은 바이올렛 색상의 벨벳과 골드가 포인트로 사용되어 귀족 칼라의 멋을 표현하였다.

바이올렛 색상의 소재에 골드와 바이올렛색의 스트라이프가 입체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앞, 뒤의 네크라인은 스퀘어로 깊게 파 주었다. 또한 허리에서 절개선을 따라 쉬폰의 플라운스를 곁들여 S곡선의 느낌을 연출하였다.

짧은 볼레로 재킷은 바이어스로 재단한 원피스 소재와 벨벳을 매치시킨 것으로 뒤로 갈수록 플레이지게 디자인 되어 원피스의 쉬폰과 함께 엘레강스하고 화려하게 전개시켰다.



<그림 60> 작품 VI 디자인 스케치



<그림 61> 작품 VI

7) 작품 VII

- ▷ 감성이미지: 에로티시즘
- ▷ 아이템: 원피스
- ▷ 색상: 블랙, 옐로우
- ▷ 소재: 새틴, 망사 레이스
- ▷ 디테일: 드로우 스트링, 비딩

새틴과 망사 레이스, 벨벳으로 이루어진 원피스는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스티에 형식의 원피스는 옐로우 톤의 새틴과 블랙 망사 레이스를 겹쳐서 사용함으로 망사를 통해서 보이는 투시적 효과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안쪽 스커트의 햄 라인은 사선으로 언밸런스하게 재단하고 망사는 행커치프 스커트의 햄 라인을 응용하여 서로서로 불규칙하면서도 비대칭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옆선은 로브의 앞트임에 드로우스트링을 응용하여 가슴에서 허리까지 드로우스트링으로 셔링이 잡히도록 하고 트임을 주었다. 소매는 목판과 연결 없이 암홀 선을 따라 고무줄로 개더를 잡아 착용할 수 있게 하였고 7부 길이의 소매에는 행커치프 형태의 커프스를 달아 스커트와 통일감을 주었다. 부스티에 가슴 라인은 비즈 장식된 블랙 벨벳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관능적인 멋을 표현하였다.



<그림 62> 작품 VII 디자인 스케치



<그림 63> 작품 VII

8) 작품 VIII

▷ 감성이미지: 아방가르드

▷ 아이템: 원피스

▷ 색상: 아이보리

▷ 소재: 벨벳, 자카드

▷ 디테일: 디테일 복합

이 작품은 아방가르드를 컨셉으로 한 원피스로서 아이보리 톤의 새틴을 메인 칼라로 하여 7벌의 작품에서 사용된 소재들을 패치워크하거나 레이스, 기타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디테일을 구성하고 풀라주 하는 등 하나의 새로운 소재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스커트를 연출하였다.

다양한 소재를 믹싱하고 장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햄 라인을 언밸런스하게 재단하였고 네크라인도 레이스를 사용해서 비대칭으로 하여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하였다.



<그림 64> 작품 VIII 디자인 스케치



<그림 65> 작품 VIII

V. 결 론

21세기 패션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혼합주의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장식적 디자인은 이를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식적 디자인도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인간의 미적 가치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로코코 시대 여성 복식은 다양한 장식 요소들로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장식 문화를 이끈 로코코 복식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로코코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고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장식적 디테일을 분류하여 이를 감성 이미지 중심으로 분석하고 로코코 장식특성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표현 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18세기 프랑스가 유럽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관심이 프랑스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 왕권의 붕괴와 국왕과 귀족들은 쾌락 추구의 향락적인 이상향에 빠져 사치의 극치를 이루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부르조아 계층이 대 자본을 형성하며 시민계층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고 계몽사상은 근대적 시민사회 건설의 기반이 되어갔다.

로코코 양식은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더욱 발달하였고 리드미컬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화려하고 세련된 귀족취미를 바탕으로 하였다. 회화, 실내장식, 공예, 조각 등 모든 분야에서 감각적 쾌락의 원리에 따른 장식미가 돋보였다.

로브로 대표되는 로코코 복식은 콜셋으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빠니에로 스커트를 확대시킨 X 실루엣을 형성하며 러플, 꽃, 리본 등이 넘칠 듯이 장식되었고 머리에도 온갖 장식으로 치장되어 높아져갔다. 레이스로 여

러 겹을 단 양가장뜨와 화려하게 장식된 스토머커, 천이나 레이스를 주름 잡아 만든 팔발라, 플라운스는 18세기의 특징적인 장식 요소가 되어 한 벌에 다양한 디테일 장식이 포함되어 S자형의 곡선 문양을 이루며 로브를 더욱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극동지역과의 교역으로 울보다는 가벼운 분위기의 직물과 시누아즈리 스타일이 프린트된 면직물이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자카드 직기의 발달로 다양한 직물 문양이 생산될 수 있었으며 꽃문양이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초기의 꽃문양은 연대가 흐르면서 꽃문양이 작아지고 S자형의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자유분방하고 화려함을 표출하였고 새틴, 브로케이드 등이 사랑받았다. 색상도 파스텔 톤의 옅은색이나 바랜 듯한 색을 사용하여 여성적인미를 돋보이게 하며 사랑스런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리포베스키(Lipovetsky)는 장식과 액세서리와 같이 복식의 세세한 부분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패션을 특징짓는 것이며 장식적 디자인은 개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각각의 디테일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디테일의 특징을 감성 이미지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로맨틱환타지, 살롱 엘레강스, 에로티시즘, 아방가르드의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로맨틱 환타지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로코코 예술의 이상으로 프릴, 레이스, 리본, 꽃등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요소들이 연속적 곡선들과 결합하여 무한한 파동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옅은 색상의 날염된 면직물에 화려하고 풍성한 꽃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로맨틱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살롱 엘레강스에 대하여 살펴볼 때 살롱을 중심으로 발달한 로코코 복식은 그들의 품위와 세련됨을 보이기 위해 섬세하고 정교한 장식과 인공적인 헤어스타일로 치장하였고 브로케이드, 벨벳, 새틴 등의 비실용적인 소재들은 바랜 듯한 색상과 조화를 이루고 자수나 스펅클, 유리 등의

표면 장식은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셋째, 감각적 쾌락의 욕구로 표현된 에로틱한 이미지는 데콜테와 깊게 파인 네크라인, 허리를 극도로 조여준 콜셋, 빠니에로 받쳐진 스커트로 X 실루엣을 형성하며 관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발목이 노출된 로브 아 라 씨르까시엔느 또한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넷째, 아방가르드는 무절제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표출하였다. 빠니에 두블로 스커트는 극도의 수평라인을, 머리형태는 사상 최대의 건축적 머리 형태를 이루며 부조화와 몰상식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여왕 스스로 시스루 소재의 속옷을 겉옷으로 착용해서 센세이션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렇듯 각각의 디테일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로코코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맨틱 환타지 이미지는 로코코 복식에 사용된 디테일이 레이스, 니트, 노방 등 다양한 소재와 함께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고 질감이 서로 다른 소재를 매치시키고 색상의 대비(color coordination)를 하여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둘째, 살롱 엘레강스 이미지는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플라운스, 꽃 등의 장식들과 고급 소재들로 표현되고 있으며 새틴과 쉬폰, 실크울과 새틴 등 다양한 소재의 조화와 부드럽고 다소 절제된 듯한 상징적 디테일로 표현하여 소프트하고 미니멀리즘한 엘레강스함을 표현하였다.

셋째, 로코코 복식의 콜셋과 빠니에에 의해 표현되었던 에로틱한 이미지가 현대에서는 부스티에로 허리를 조여 주고, 망사나 레이스,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섹시함을 표현하고, 블랙과 레드의 색상 대비로 관능적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고 밀착, 투시, 트임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넷째,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로코코 복식에서 과장으로 표현되고 속옷의

겉옷화로 표현되었는데 현대에서도 칼라의 확대 및 전통의 과격성을 볼 수 있다. 리본을 상징적 이미지 표출하는데 있어 소재 및 색상을 대비시키거나 언밸런스한 헴 라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상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1은 레이스와 노방의 프릴, 앙가장을 장식한 재킷과 벨벳에 레이스를 레이어드 시킨 스커트로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 하였고,

작품2는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였는데 플리즈와 리본을 장식한 재킷과 커피스에 리본 장식을 한 바지로 구성하였다.

작품3은 핑크 노방과 레이스를 이용한 프릴과 로코코적 요소인 팔발라를 장식하여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작품4는 홈스펀과 쉬폰의 이질적 소재에 리본과 플라운스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작품5는 실크와 벨벳으로 구성된 바지 슈트에 비즈로 장식하여 우아하면서도 럭셔리하게 표현하였다.

작품6은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바이올렛 색상의 볼레로와 플라운스가 장식된 원피스로 구성 되었다.

작품7은 옐로우와 블랙을 레이어드한 원피스의 색의 대비 및 투시에 의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8은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비대칭 실루엣에 여러 소재를 패치워크한 원피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로코코 복식에서 나타난 장식적 이미지와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로코코적 장식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로코코 시대 복식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프릴이나 플라운스, 꽃, 리본, 비즈, 자수, 콜셋, 빠니에와 색상, 문양은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현대 패션에서도 로코코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디테일 등이 사용되는데 과거의 것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디테일을 표현하고 색상의 대비나 이질적 소재의 조화로 재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현대 패션의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서 더 많은 디테일의 개발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것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시대 여성복식에 국한하여 연구 되었는데 보다 폭넓은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성 복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현진.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복식, 54(6) (2004), pp.43-57.
- 공미란·안인숙 공저. 패션 디자인. 서울:예학사, 2003.
- 김민자.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의생활 문화-, 삼성문화, 18호(1993), pp.22-25
- 김영자.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2.
- 마틸린 혼·루이스 구렐, 이화연·민동원·존미영 옮김, 의복: 제2의 피부. 서울:까치, 1995.
- 박삿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박춘순. 18세기 프랑스 복식과 Rococo 장식 motif. 복식, 제4호(1981.2), pp.61-86
- 배만실. 장식미술사. 서울:지문당, 1994.
- 배영수. 서양사 강의. 서울:한울, 2002.
- 블랑쉬 페인, 이종남,안혜준,김선영,정명숙(역)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까치글방, 1997.
- 성수광. 패션 디자인학의 이해. 서울:교문사, 1999.
- 스테판 존스, 김수현. 18세기의 미술. 서울:예경산업사, 1991.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93.
- 아르놀트 하우스, 염무웅,반성완(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로코코, 고전주의, 낭만주의.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9.
-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역). 프랑스사. 서울:기린원, 1991
- 엘리자베스 루즈, 이재한 옮김.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서울:시지락, 2003.
- 오소정. 터킹(tucking)을 이용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수학사, 1995.

- 윤석구. 신패션용어사전. 서울:주간디자인(주), 2000.
- 윤자현.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과 표현수준에 따른 복식의 이미지 지각.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 월간미술편. 세계 미술용어사전. 서울:중앙일보사, 1989.
- 이경인.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선화. 바로크 로코코시대 플로털 패턴의 조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영환. 서양미술사. 서울:박영사, 1985.
-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교문사,1998.
- 정삼호,김영숙. 현대 패션모드. 서울:교문사,1996
- 정운길.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한국 사전연구사, 1997.
-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정현진의 5인 공저. 미용문화사. 서울:광문각, 2003
- 이호정. 복식 디자인. 서울:교학연구사, 1997
-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교문사, 2003.
- 정홍숙·박형애.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신와즈리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11집(1998.2), pp.153-174
- 제르망 바쟁, 김미정(역).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시공사, 1998.
-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경춘사, 1995.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93
- 조영란.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주소현. 여성 패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 진취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2002
-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2. 서울:탐구당, 2003.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1995.

- 채금석, 千村典生, 김미숙.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지구문화사, 2003.
- 최경원, 김세나, 유제부.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패션인사이트, 2003.
-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미술의 탄생에서 신표현주의까지. 서울:가람기획, 1997.
- 최은경. Sewing technique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stitching,binding,pleating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 토비 피셔 미르킨, 허준.안종설(역). 패션 속으로. 서울: 새로운 사람들, 1996.
- 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역). 세계풍속사 하-르네상스에서 섹스혁명까지. 서울:도서출판 까치, 1992.
- 패션 큰 사전편찬위원회. 패션 큰 사전. 서울:교문사, 1999.
- 허갑섭. 복식문화와 복장사. 서울:이즘, 1998.
- 홍순미.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 홍을미. Rococo 직물 무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 다카하시 히데지, 유길준(역). 서양미술사. 서울:조형사, 1996.
- 竹内敏雄, 美學辭典, 안영길 외(역). 미학·예술학 사전. 서울:미진사, 1993.
- Hurlock, Elizabeth B., 박길순·정현숙(역). 복식의 심리학-패션과 그 동기에 대한 분석. 서울:경춘사, 1990.
- Gilles Lipovestsky, 이득재(역). 패션의 제국. 서울:문예출판사, 1999.
- Herbert Read,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Design, 정시화(역), 디자인론. 서울:미진사, 1979.
- Marian L.Davis, 이화연·손미영·노희숙(역), Visual Design in Dress(복식의 시각 디자인). 서울:경춘사, 1990.
- Wolfhart Henkmann and Kontad Lotter, Lexikon der Aesthetik, 김진수(역). 미학 사전. 서울:예경, 1998.
- Charlotte.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Books, 1998.
- Ribeiro. A.. *Dress in 18th century Europe 1715~1789*. London: B.T.

Batsford Ltd., 1984.

石山彰. *Costume Lexicon for fashion Business*. 東京:グヴァイット社, 1982.

Boucher, Francois.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7.

Bethsabee, Blumel. *Histoire de la Coiffure et des Coiffeurs*. Paris, LA
ROUSSE, 1995.

Fukai, Akiko., Suoh, Tamami., Iwagami, Miki., Koga, Reiko., and Nie, Rii.
Fashion. koln, TASCHEN GmbH, 2005.

기타자료

Collection. Vol.6.

Gap Press. Vol.12, Vol.61, Vol.63, Vol.64, Vol.66.

Mode et Mode. No.332.

다음 (www.daum.net)

네이버 (www.naver.com)

www.maquise.de

ABSTRACT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influenced by the Rococo Women's Costume (focus on the details)

Cho, Jung-Moo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21st Century is the era at which the interest in the decorative design is increasing, with the trend that the fashion is getting the nature of mixture. At this point of the age, I have chosen the female costumes of the rococo, which can represent the decorative culture and studied the decorative image. I have tri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coco fashion shown in the modern fashion.

In the 18th Century, France has emerged as the center of the European Culture, and all the matter of concern has turned towards France. However, due to the collapse of the absolute royal power, luxury and extravagance of the Palace, the economy has come down to ruptur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have laid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Civil Society.

The Rococo costume is the decorative art, which makes the best

use of the beauty of the elegant curve with the emphasis on the human being. The Rococo costume shows the decorative characteristics in all the fields, including the interior decoration of the fine arts, etc. The Rococo costume has spread out with the Salons of the women as the main body and as the center, and the highest reach of the decorative beauty was also shown in the costumes worn by them.

Rococo costumes represented by Robe was decorated overwhelmingly with ruffles flowers, ribbons, etc. and expressed by the liberal sense with the materials of tafta of paster color, brocade, etc. engageantes, stomacher, falbala and flounce have become the biggest decorative factors of the 18th Century, and showed the S-type curve pattern, thus expressing the Robe more womanly, more elegantly and more romantically.

Four categories can be made as the result of the observation having the image as the center of the detail characteristics shown in these Rococo costum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romantic and elegant image was formed,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sensual and avant-garde image was formed.

Firstly, the Romantic fantasy is the repletion of the decorative factors overwhelmed with the ideal of the Rococo art harmonized with the reason and sense and the combination of the curve, and expressed the luxurious, romantic and fantastic image.

Secondly, Salon elegance expressed the aristocratic elegance with the detail requiring womanly delicacy of the materials and labor of the others.

Thirdly, Eroticism expressed the sensual feminine beauty by thinning

down the waist with the deeply-dug neckline and corset, emphasizing the hips.

Fourthly, Avant-garde expressed the unconventional image with the big panier coming from the Bohemian lifestyle and hair style unbalancing within the excessive decoration.

The decorativeness of the Modern Romanticism is well expressed in the diversified materials with the fantastic colors, compositions, detail imitating the costumes of the historicism, the trimming techniques, etc.

According to the Rococo image shown in the modern fashion,

Firstly, the Romantic fantasy expresses the dream and illusion of the childhood with the diversified detail.

Secondly, Salon Elegance expresses the artistic modelling through Haute-couture, and expresses the Rococo-style image through the minimal way.

Thirdly, the lace is mainly used in the expression of the Eroticism, and expresses the self-confidence for the self-satisfaction.

Fourthly, Avant-garde expresses in the material development by the diversified techniques, asymmetric cutting, etc., and is shown in the changed form and re-interpretation of the Rococo factors.

To satisfy the diversified needs of the modern times, the Costumes Design, as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human sense and emotion, is supplied with many ideas from the reactionism. It is also interpreted anew in the modern time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imes.